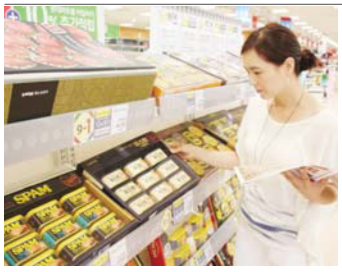
Life p/14



이른 추석에 발빠른 마케팅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제3036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노래 대결 프로그램 뜨겁다

지구촌 눈길 교황 발길 한국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방한을 앞두고 한 시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교황의 사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5년만의 방한…분단의 한반도에 평화의 행보
124위 시복미사·아시아청년대회 참석 등 일정

가톨릭교회의 리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온다. 4박5일 동안 어떤 메시지와 행적을 보일지 지구촌의 이목은 한국을 향해 있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다. 횟수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1984년과 1989년 두차례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은 아시아 최초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14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교황을 직접 영접한다. 청와대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사목방한을 맞아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예우를 갖춰 영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에겐 '희망', 갈등엔 '화합과 위로'

교황의 주요 일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참석과 '윤지충과 동료 123위 시복미사' 집전에서 이번 방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소 교황은 청년들에게 '희망', '세상을 향한 개방된 삶'을 강조했다. 소비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자기보다 더 큰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불의와 부정에 대항할 것을 권고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처한 노동·세속화·물질주의·신앙·문화 등의 문제에 교황은 적절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도 기대할 수 있다. 교황은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 간의 화합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경남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꽃동네 장애인 등 갈등과 피해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직접 만난다. 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교황이 종교와 이념을 떠나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황이 순교자의 땅을 찾아 직접 시복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시복미사는 관례적으로 바티칸에서 교황청 시성성('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기관) 장관 추기경이 교황을 대리해 거행해왔다.

특히 광화문광장이 시복미사 장소로 결정된 것은 조선시대 의금부·포도청·서소문 형장 등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고초를 겪고 목숨을 바친 곳들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복식은 한국 가톨릭교회 사상 처음으로 자력 추진한 시복작업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4박5일 간 약1000㎞ 일정 소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공항에서 나와 청와대 인근의 주한교황청대사관에서 개인미사를 보고 청와대로 향한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박 대통령과 면담하고 주요 공직자들을 만나 연설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 중곡동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로 옮겨 한국천주교 주교단과 직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 한다.

방한 이틀째인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자 천주교 성모승천대축일이다. 교황은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헬기로 아침 일찍 충남·대전 지역으로 이동해 하루를 보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천주교 신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등이 참석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한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을 따로 만나 아픔을 어루만지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교황 방한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아시아 청년들이 모이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교황이 대륙별로 진행되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어 당진의 솔뫼성지를 방문한다.

방한 3일째인 16일에는 일정 중 최대 행사인 순교자 124위 시복식이 광화문에서 예정돼 있다. 교황은 이날 오전 8시55분 한국천주교의 최대 순교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한다. 이곳은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중 27위가 순교한 곳이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1.2㎞ 구간 퍼레이드를 한 뒤 광화문광장 북쪽 끝에 설치된 제단에 올라 2시간 20분가량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시복식이 끝나면 장애인요양시설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로 이동한다.

<관련기사 2면으로 이어집니다.>

메트로 신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16일 특별판을 제작·배포합니다.

'청빈함의 대명사' 교황이 되기까지…

남미 출신 처음, 즉위명 '프란치스코'도 최초



지난해 3월 13일, 제266대 교황이 선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당시 예수회 소속인 새 교황이 예수회와 대립했던 프란치스코회를 만든 프란치스코 성인에서 즉위명을 따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보통 교황들은 역대 교황들의 즉위명을 계승하는데 '프란치스코'라는 명은 처음이었다.

교황은 당시 즉위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황에 선출됐다는 결안 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생각났고, 이어 평화의 상징인 성인 프란치스코가 마음 속에 들어왔다.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과 같이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가난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발에 누더기를 걸치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하다. 청빈과 겸손,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를 후세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직후부터 '작은 것'을 택하며 즉위명에 걸맞은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관행을 깨고 교황 관저가 아닌 낡은 게스트하우스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곳은 1891년 바티칸 인근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당시 교황 레오 13세가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만든 건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피해 몰려든 망명자와 유대인들의 피신처로 쓰였다.

교황은 취임 직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17일, 교황 즉위 후 맞은 첫 생일상에 동유럽 출신 노숙인 세 명을 초청해 함께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으나 사제직을 택한 뒤 비야 데보토의 신학교에 들어간다.

1958년 3월 11일 그는 예수회의 수련소로 옮겨 칠레에서 인문학 과정을 마쳤다. 1963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 산미겔 시에 있는 성 요셉 대신학교에서 철학사 학위를 받는다.

1969년 12월 13일, 사제품을 받게 되고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스페인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3차 수련을 마친 후 1973년 4월 22일 종신 서원을 한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산미겔 철학 신학 대학의 학장으로 일하면서 산미겔 교구의 파트리아르카 산호세 본당의 주임 사제를 겸임했다. 그후 1986년 3월, 독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마쳤고 수도회 장상들은 그를 엘살바도르 대학교와 코르도바 대학교의 고해사제와 영성지도자로 임명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 5월 20일, 그를 아우카 명의 주교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한다. 그후 1992년 6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좌성당에서 안토니오 콰라시노 추기경·우발도 칼라브레시 교황 대사·메르세데스 루얀 교구의 에밀리오 오그네노비치 주교에게 주교품을 받게된다.

2001년 2월 21일,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추기경회의에서 그를 추기경으로 서임한다. 2005년 11월 8일부터 2011년 11월 8일까지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광화문광장 '시복식' 준비 '끝'

경호·의료 등 만일의 사태 완벽 대비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 미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과 서울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는 시복식 중 저격을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이 보이는 곳에 있는 빌딩은 행사일을 전후해 창문을 닫아야 하고 옥상 이용도 금지된다. 주요 건물의 옥상에는 저격수가 배치돼 행사장 주변을 감시하고 테러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이 90㎝짜리 방호벽이 설치된다. 방호벽 안에는 사전에 행사 참석을 신청한 20만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할 때 신분 확인과 함께 금속탐지기 검색을 거쳐야 한다.

행사 당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가 모두 출동한다. 경찰 기동대와 금속탐지기 근무자만 2000명에 달하며 일선 경찰서 인력까지 합하면 행사에 동원되는 경찰은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개인 총기 6만5000여 정은 경찰서에 임시 보관된다.

서울시는 교황 시복식이 폭염 속에 치러질 가능성을 대비해 행사장 일대에 25개의 응급의료소를 설치한다.

의료소에는 소방서·천주교·보건소에서 나온 의료 인력 225명이 배치되고 물·얼음 조끼·소금 등 온열환자를 위한 물품들이 준비된다.

119구급 순찰팀은 행사장을 돌며 응급환자 조치와 병원 이송 임무를 맡는다. 응급환자는 행사장에서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8개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교황에게 보내는 시민 메시지 13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외벽 시민게시판에 교황 방한을 환영하는 시민의 메시지가 보인다. 대표번호 010-6387-1177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신청사 외벽 시민게시판에 아침 7~10시, 저녁 7~10시 총 6시간 동안 표출되며 오는 18일까지 보낼 수 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디를 갈까?

방문 예정지 알아보면…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박 5일간 약 1000㎞를 이동하는 일정 중 주목해야 할 국내 '천주교의 상징'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에서는 방한 마지막날 방문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심장 '명동대성당'이 있다. 한국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곳이자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1898년 5월 29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당시 조선 교구장 뮈텔 주교의 집전으로 역사적인 축성식이 진행된 바 있다.

또 16일 시복식 후 이동하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는 한국 천주교회 최대의 종합복지시설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복지시설이다. 입양기관인 천사의 집부터 임종의 집까지 한국사회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과 환우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봉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솔뫼성지'와 '해미성지'도 빠뜨릴 수 없다.

솔뫼성지는 '내포 신앙의 못자리'로 알려진 곳으로 김대건 신부 가족들이 박해를 받다 순교하게 돼 자연스럽게 '순교자의 고향'이 됐다. 179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이르는 100년간 천주교 신자들이 국사범으로 몰려 대량 처형된 해미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비오)가 옥사당한 곳으로 유명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지구촌 눈길 교황 발길 한국에…

<1면에서 계속>

교황은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한국 수도자 4000여 명,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17일에는 하루 대부분을 충남 서산 해미에서 머무른다. 오전에 해미 순교성지 성당에서 아시아 주교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인근 해미읍성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명동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로 방한의 대미를 장식한다. 교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이 참석하는 미사를 집전하고 한반도 평화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난다.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낮 12시45분 서울공항에서 간단한 환송식을 갖고 닷새간 1000㎞에 육박했던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방한 기간 교황은 서울 종로의 주한교황청대사관에 머물며 장거리 이동 때는 청와대에서 제공한 전용헬기를, 단거리 이동은 승용차를 이용한다.

/김학철기자

지하철, 경복궁·광화문·시청역 무정차

시복식 16일 오전 4시~12시20분… 버스는 전날부터 우회 운행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개인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101개 버스 노선은 전날부터 우회 운행한다.

시복식 미사는 제단이 차려지는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 약 1.2㎞ 인근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미사 전에는 약 30분 동안 서울광장~광화문까지 교황의 카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은 16일 오전 4시부터~12시20분까지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서지 않는다. 다만 첫차 시간을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기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78회,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36회 증편 운행된다.

4만 8000여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부제는 해제되고, 광화문과 주변 지역을 지나는 101개 노선, 1858대의 버스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우회 운행한다.

/김민준기자 mjkim@

가혹행위 신고 '軍파라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으로 제시… GOP 부대 면회도 허용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 행위, 언어 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 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 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구타와 언어 폭력, 가혹 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 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A·B·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입영 신체검사 때 1·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병영문화 혁신위한 전군지휘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에 몇 명 탄 줄도 몰랐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항공구조사들 '깜깜이 출동' 증언

해경의 정예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당시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증언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민준기자 mjkim@

"TV에서 날 봤어? 재미없었겠네…"

노동신문 김정은 친근감 강조 눈길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사진) 제1위원장의 소탈하고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원아들의 웃음소리'라는 제목 기사에서 평안남도 평성시의 고아 양육시설에 사는 5세원아인 리명복 군이 지난 5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에서 김 제1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김 제1위원장이 "(방금) 뭘 하댔느냐(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리 군은 "텔레비전을 보댔습니다(봤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댔는가"라고 다시 묻자 리 군은 "아버지 원수님(김정은)을 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재미없었겠구나"라고 말했다.

'은둔의 지도자'로 통하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은 간부에게 엄격하면서도 대중에게는 따뜻한 모습으로 민심을 얻으려 한다"며 "통치 스타일이 김일성 주석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윤 일병과 '진짜 사나이' 폐지



기자 수첩
전효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윤 일병 사건으로 MBC '일밤-진짜 사나이'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군 실태를 미화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제작진은 리얼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해 시청자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짜 사나이'는 군대 이야기를 다룬다는 이유 만으로 매번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 방송이 폐지된다고 해서 군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사나이'는 군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굳이 리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리얼 예능은 점차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시청자는 진짜를 구분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 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진짜 사나이'가 논란이 되는 이유다.

출연하는 일반 병사를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제작진은 "방송 출연을 원하지 않는 병사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GOP 총기 난사 사고로 떠들썩 할 때 경기도 연천 5사단 열쇠부대 GOP 이야기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MBC측은 결방 대신 "군 장병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하겠다"고 했으나 출연 연예인 병사가 장난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리얼 여부를 떠나 '진짜 사나이'의 본질은 예능이다. 방송의 진정성은 의심해도 출연진이 훈련 받는 과정과 그들이 보여주는 전우애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입대가 아니라 군대를 일정기간 체험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프로그램 폐지를 논하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은폐를 일삼는 군대의 악습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고안하는 게 우선이다.

뇌물, 국회의원 그리고 기자

여의도 패트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철도 관련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검찰 소환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필자에겐 "의원들이 다 저렇게 뇌물을 받아먹냐"는 야유가 지인들로부터 쏟아진다. 단연코 "아니다"라고 주장해 보지만, 잘 믿지 않는 눈치다. 심지어 정치부 기자들도 "으레 정치인은 돈 받지 않냐"고 떠본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정치인들은 항상 부패하고 뇌물에 매수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정말 그럴까. 국회의원들은 뇌물이나 받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 존재들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받을 만큼 부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정치 자금이 끼어들 여지도 별로 없다.

다만 입법자로서 각자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그 힘에 비례해 다양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느 집단에나 문제아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질 나쁜 의원들은 이미 여의도에 소문이 퍼져 있다. 구체적 사건이 터지기 전엔 찌라시에 익명으로 나오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지 못하게 감시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김연아가 아이스하키 선수와 사귄다는 대형 특종을 접하곤 바로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김연아를 수 개월간 밀착 취재하는 연예 기자 수준의 끈기라면 국회의원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

나쁜 소문이 많은 의원을 몇 달만 쫓아다니면 특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을지는 국회 보좌진 3~4명한테만 묻는다면 금방 답이 나온다.

정치인은 '공인(公認)'된 '공인(公人)'이기 때문에 연예인 취재의 경우처럼 파파라치식 보도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을 부담이 없다. 이쯤 되면 오히려 파파라치식 정치인 스캔들 기사가 아직 안 나온게 필자는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 뇌물 정치인, 기자들이 잡을 수 있다. /유보좌



수학자대회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ICM) 행사장에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퇴직 청장에 '용역 몰아주기'

기상청 3년간 34억 계약… 쓸모없는 항공기 구입에 160억 지출

기상청이 퇴직한 청장이 세운 자격미달 용역기관에 3년간 3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월 기상청을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청장 정모씨가 퇴직 직후 세운 '한국기후아카데미'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든 교육·훈련 용역계약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건수로는 82건으로 이 중 6억원 규모에 달하는 48건의 계약에 대해 "기상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협상이나 입찰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평가에서 기후아카데미만을 '적격'으로 평가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2012년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업무 소홀로 규격 미달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상청은 당초 '26개 기상관측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로 입찰공고를 내고서도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평가를 진행,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도 없고 정원도 13명에 불과한 항공기에 16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을 담당한 기상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요구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된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된 13일 오전 서울 잠실 일대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뉴시스

4년 전 부대장 성희롱 여군장교 자살

軍 '구두 경고' 그쳐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에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45) 소령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당시 25세) 중위를 성희롱했다. 당시 심 중위는 이를 괴로워하다가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당국은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 일주일 뒤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며 심 중위 사망 사건은 세상에서 잊혀졌다.

이후 지난해 2월 강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대위의 순직 사건을 계기로 심 중위 어머니는 5월 권익위를 찾아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익위는 4년 전 심 중위 사망 사건 수사기록 등을 재조사한 끝에 A 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 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다. /윤다혜기자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도 책임

첫 지자체 배상 판결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

유병언 형 병일씨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13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에서 1991년 홍수로 세모유람선이 한강에 침몰해 아들이 숨졌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구형을 받은 것은 병일씨가 처음으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윤다혜기자

매표소에서 자동발매기로



(왼쪽)매표소에서 표 파는 역무원·자동발매기 앞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역무원.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⑦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하철 발전에 따라 역무원의 업무와 역할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매표소에서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샀지만 역무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자동발매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매표소에 앉아 있던 역무원도 밖으로 나와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500명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의무화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열고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김민준기자 mjkim@

에볼라 시험용 치료제 허용

WHO, 효과·부작용 등 논란… 지맵 등 물량 부족도 문제



12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시신을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다. /A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 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투약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치료약과 백신이 없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제공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WHO는 서아프리카에서 시험단계 치료제인 '지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이미 시험용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맵을 개발한 맵바이오제약은 WHO의 결정과는 별도로 나이지리아와 라이베리아 의료진에게 이번 주 안으로 지맵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WHO는 이번 허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회원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개별 회원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의 분배나 투약 우선순위 등 시험용 치료제 허용의 핵심 사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마리 폴 키에니 WHO 사무부총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현재 사용 가능한 시험용 치료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른다. 시험용 치료제로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잘못된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시험단계 치료제의 투약이 증가하면 약의 효능과 부작용, 공정한 분배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험단계 치료제 중 가장 눈길을 끈 지맵의 물량은 이미 소진됐다고 미 CNN방송 등 외신은 전했다. 맵바이오제약은 추가 생산에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료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라이베리아에서 봉사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 본국으로 송환된 미국인 켄트 브랜틀리(33)와 낸시 라이트볼(60)은 지맵 투여 후 증세가 호전됐다. 반면 지맵을 투여한 스페인 신부는 사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시리아로 피난온 야지디족 이라크 반군의 박해를 피해 시리아로 집단 피신한 야지디족이 12일(현지시간) 데리크의 노우루즈 난민 캠프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받기 위해 모여 있다. /AP 연합뉴스

美 이라크에 군사고문관 130명 추가

야지디족 탈출로 확보·인도주의적 지원 임무

미국이 이라크에 군사고문단 13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12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추가로 파견한 군사고문단 130명이 이날 오전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한 군사고문단은 해병대와 특수부대 요원들이다. 이들은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IS)의 공세로 신자르 산악 지대에 갇힌 야지디족의 탈출로 확보와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250명의 군사고문관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도 이라크에 무기를 지원하고 수송기로 구호물품을 실어 날랐다.

영국 정부는 야지디족을 돕기 위해 공군 토네이도 전투기 8대와 치누크 헬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독일은 장갑차와 야간투시 장비 등 비살상 무기를 이라크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t의 구호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새 총리 지명으로 인한 이라크의 정정 불안도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산악 지대로 내쫓긴 야지디족 난민 등 3만5000명이 시리아를 거쳐 도후크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UNHCR은 아직 2만~3만 명의 난민이 산악 지대에 남아 있으며 식량과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По Москве проехали старинные автобусы

Круглая дата. Первому автобусному маршруту в Москве исполнилось 90 лет

Юлия Дудкина

'복고 버스' 이색 퍼레이드

metro Russia

노선 개통 90주년 기념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시에서 버스 노선 개통 90주년을 기념해 '복고 버스' 퍼레이드가 열려 화제다.

시 관계자는 "1924년 8월 8일, 모스크바 최초의 8.5km 버스 노선이 생겼다"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구소련 시대 대표적 도시 버스인 'ZIS-8' 버스를 선두로 복고 버스 15대는 레닌그라드스키 대로 1번지를 출발,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 도로' 사도보에 칼초를 통과한 후 사하로프 대로로 돌아왔다.

모스크바 '버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용된 버스는 과거에 실제 운행됐던 버스"라며 "옛날 버스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ZIS-154 모델의 경우 오래전 생산이 중단돼 남아있는 버스가 없었다"며 "모스크바 근교 시골에서 간신히 버스를 찾았다"고 했다. 이어 "낡은 버스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모스크바 각지에서 부품을 구해서 수리했다"며 "버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버스에 올라타며 옛 추억을 회상했다.

복고 버스에 승차한 '빅토르' 할아버지는 "한때 매일같이 타고 다니던 버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면서 "옛 버스를 보니 평생지기 친구를 만난 듯 반갑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다른 시민 '나탈리아' 할머니는 "당시 버스 요금은 10코페이카로 식당에서 밥 한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꽤 큰 돈이었다"며 "오늘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도 승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율리아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공사중 12억어치 '금화' 발견

metro France

인부들 나눠 가져



Des ouvriers poursuivis pour le vol d' trésor découvert sur un chantier

프랑스에서 공사 중 발견된 금화를 현장 인부들이 나눠가진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오드 노르망디 지방 위르의 한 주택 정원에서 대량의 금화가 발견됐다. 땅 속엔 1927년과 1924년에 발행된 20달러짜리 금화 600개가 묻혀 있었다. 돈으로 환산된 가치는 90만 유로(약 12억3486만원)에 달한다.

당시 이 금화 더미를 발견한 인부들은 주인이 눈치 채기 전 나눠갖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인부 두 명이 27만 유로(약 3억)와 3만유로(약 4116만원)를 계좌에 입금하던 중 이상함을 느낀 공무원이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금화를 발견한 인부는 20세, 33세, 40세로 총 세 명이었으며 이동수단을 제공한 공범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땅 소유주의 토지에서 고가의 재화가 발견될 경우 이는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즉 인부들이 나눠가진 금화는 다시 정원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최초 발견자의 몫도 일정부분 인정된다.

/니콜라 바벨 기자·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2062.36 (+20.89)	코스닥	551.73 (+5.97)
금리(국고채 3년)	2.5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29.30 (+1.80)



교황 방한 기념주화 한국조폐공사는 '교황 방한 기념주화' 예약 접수를 오는 22일까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실시한다. /연합뉴스

피팅모델 1만3589원
7년연속 알바 시급 1위

피팅모델이 7년 연속 아르바이트 시급 1위에 올랐다.

13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등록된 103개 직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피팅모델의 시급이 1만3589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1위다.

이어 대학·교육기관(1만1879원), 강사·교육 기타(1만716원), 개인지도·과외(1만127원) 등 교육 관련 아르바이트가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서비스 직종인 나레이터 모델이 9817원으로 5위에 올랐다.

아웃바운드 TM(8482원), 영업·마케팅(8221원) 등 상담·영업직종이 10위권 안에 새로 진입했다.

반면 최악의 시급을 받는 직종 1위는 만화방으로 5266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연속 최하위다.

이어 편의점(5313원), DVD방(5320원), 베이커리(5353원), PC방(5378원) 등 매장관리 직종이 줄줄이 최저시급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kmlee@

연금복권520 제16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498596
		5조	347668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907719
4등	100만원	각조	96313
5등	2만원	각조	342
6등	2000원	각조	92, 18
7등	1000원	각조	1, 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잡아라

금융·모바일·통신업체 등 선점 경쟁

간편 결제서비스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결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금융권, 카카오와 캠프모바일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 이동통신사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카카오와 캠프모바일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소액 송금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는 은행·카드사, LG CNS 등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와 '카카오 간편결제' 등을 다음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삼성·신한·씨티 등 9개 카드사와 손잡고 9월 내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프모바일 역시 현재 밴드에 장착된 'N빵 계산기'라는 기능을 확장해 송금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서비스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금융권에서도 서비스 협력을 위해 주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플러스' 출시 행사에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기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도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간편결제 시스템 '셀프페이'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셀프페이는 금감원 보안성 심의가 진행중인 자사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셀프페이는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는 행위만으로도 등록과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용카드 정보 등록은 물론 본인인증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직접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도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케이페이(Kpay)'의 내부 개발을 완료했다. 9월부터 기존 10만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간편 결제서비스 시장에 이통사도 명함을 내밀었다.

LG유플러스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앱을 설치하고 최초 1회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추가 절차 없이 모바일과 PC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나우 플러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페이나우 플러스'가 국내 결제 사업자 최초로 인증부터 결제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보안·안전성, 정보보호 통합심의 등을 포함해 금감원의 엄격한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페이나우 플러스'는 순수 결제시간만 놓고 보면 3초면 충분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바일 뱅킹 이용자 수는 4993만명, 금액은 1조4133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발해지면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은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결국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추석 선물 상품전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추석 명절선물 상품전을 찾은 참관객들이 황태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 한달새 2.8조 늘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앞서 6월에도 은행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이 늘면서 증가액이 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데다 은행들의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판촉 영향이 가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7월 중 모기지론 양도분을 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金' 안전자산 매력 잃었나…
지정학적 불안에도 상승탄력 사라져
등락결정 변수로 '통화정책' 꼽아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값은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

금에 대한 투자 관점이 리스크 회피에서 통화정책 향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금이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은 지난 1980년대부터 위기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부각됐다. 이 때문에 최근 지정학적 위기에도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금값은 올해 9% 정도 상승했고, 1300달러대에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 잦고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변수로 여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 투자자 가운데 33%는 금값 등락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로 '통화정책'을 꼽았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앤드류 윌킨스 수석 시장애널리스트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금값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세계 최대 금 수요국인 인도에서 값싼 은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점도 금값 상승세를 저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금값 랠리가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이 부각되면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큐리 애널리스트는 "연말에 금값이 온스당 105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완만한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서면 금값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iPhone 5s는 역시
올레가 Good Choice



iPhone 5s

1. 광대역 LTE 품질의 자신감,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기지국**
2. 독보적인 21만 WiFi 커버리지에 **3배 빠른 GiGA WiFi까지**
3. 1년만에 최신 iPhone으로 바꾸는 **스펀지 플랜**
4. 데이터, 음성 맘껏 쓰는 **최강의 완전무한 요금제**
5. 판타스틱한 할인혜택,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olleh

가입문의 / olleh폰 114(무료), 일반전화 : 1588-0010(유료) www.olleh.com

증권회사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61개사 당기순익 2774억… 정부정책으로 추가 실적개선 기대

국내 증권회사들이 구조조정과 주식거래대금 감소에도 채권 관련 수익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가격제한폭 확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실적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 2분기 국내 증권회사 61개사의 당기순이익이 27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2억원(13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들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익이 2979억원으로 흑자전환하고서 2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관련 자기매매이익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1564억원(9.7%)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96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식거래대금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2150억원(21.6%) 줄어들었다.

지난해 2분기 398조6000억원이던 주식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335조6000억원, 2분기 331조2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판매관리비는 인원·지점을 감축한 증권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 일시적 비용 부담으로 1년새 5.1% 증가했다.

증권회사 인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4만1687명에서 올해 3월 말 3만9146명, 6월 말 3만7723명으로 1년새 40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수 역시 이 기간 1565개에서 1380개, 1343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자기매매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81억원(127%) 증가하면서 당기순익 흑자 기조를 이끌었다.

자기매매이익 가운데 파생 관련 손익은 지난해 2분기 85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55억 손실로 적자 전환했으나 주식과 채권 관련 손익이 대폭 늘었다.

주식 관련 손익은 이 기간 5326억원 적자에서 8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채권 관련 손익은 3345억원에서 1만5047억원으로 349.8% 크게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39개사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동양증권과 한맥투자증권 등 22개사는 적자를 냈다.

적자회사 중 국내 증권회사가 12곳, 외국 증권회사가 10곳이었다. 이 중 지난 6월말 청산을 결정한 BNG증권과 외국계 증권사인 BOS증권, CIMB증권, 바클레이즈 증권 등 4곳은 지난해 이후 매 분기 손실을 지속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금리 하락과 판관비 감소,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점차 이익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이제 증권사 실적은 양적 성장보다 차별적인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내銀 BIS비율 14.12%… '양호'

올 2분기 중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6월말 국내은행의BIS자본비율 현황 및 감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3월말 대비 각각 0.05%p, 0.05%p, 0.11%p 상승한 14.12%, 11.65%, 11.27%로 집계됐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별 총자본비율은 7개 은행에서 상승한 반면 11개 은행은 하락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이 16.64%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이 11.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특수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이 14.27%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이 11.1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원화대출금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6조1000억원 증가(0.50%)했지만 이보다 자기자본이 더 크게 증가(0.93%)했던 점이 총자본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자기자본 확대는 자본증권 상황에 따른 당기순이익(2조4000억원)과 바젤Ⅲ 적격 조건부 자본증권발행(1조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장기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보수 체제를 개선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중심의 자본확충을 유도 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KB국민은행, '창조금융예금' 판매 KB국민은행은 'KB창조금융예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 이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의인재 육성·청년창업 지원 등을 위한 기부금으로 은행이 출연해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토록 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제공

수도권내 입주 1~2년차 전세 1억원대 주요 아파트

사업명	위치	총가구수	전용면적(㎡)	입주시기	건설사
양주 서희스타힐스	경기 양주시 덕정동	1028	59~84	2014년 4월	서희건설
일신휴먼빌	경기 화성시 봉담읍	540	84~120	2012년 6월	일신건영
서수원 엠코타운 르본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04	59~84	2013년 2월	현대엠코
신일유토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76	59	2013년 4월	신일건업
평택청북 풍림아이원	경기 평택시 청북면	232	84	2013년 5월	풍림산업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	경기 평택시 장안동	1943	67~114	2013년 5월	코오롱건설

수도권, 1억원대 아파트 전세 어디…

수도권에서 1억원대로 구할 수 있는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눈길을 끈다. 보통 전셋값이 저렴할 경우 집이 좁거나 오래돼 살기 불편한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평균 전셋값의 절반 수준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일대 위치한 '양주 서희스타힐스'는 평균 1억~1억3000만원대의 전세가로 합리적인 전세살이가 가능하다. 지난 4월 입주에 들어간 새 아파트인데다, 서울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84㎡, 전체 1028가구 규모다. 지하철 1호선 덕정역이 도보 5분 거리로, 급행 이용시 서울까지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에서 지난 2012년 6월 입주한 '일신휴먼빌'은 84㎡ 평균전세가가 1억7500만원대다. 총 540가구, 84~120㎡로 구성됐다. 봉담~동탄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단지 중앙광장 바닥 분수 설치 및 산책로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수원대학교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 엠코타운 르본느'는 59~84㎡, 총 204가구 규모다. 84㎡ 평균전세가가 1억8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2013년 2월 입주했으며, 인근에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하나로마트가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배후 주거지로 알맞다. 일월저수지, 여기산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에서 작년 5월 집들이에 들어간 '평택청북 풍림아이원'은 84㎡ 전세가가 1억2500만원 선이다. 총 232가구,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청북택지개발지구 안에 입지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예상된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진입하면 잠시 주춤했던 전세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금 서둘러서 발품을 판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7월 주택거래량 94% 증가

지난 7월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동월대비 94.0% 증가하고, 전월대비로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침 등이 시장의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6850건으로 지난해 7월(3만9608건)보다 94.0%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의 영향 등으로 5·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은 내수 진작을 위해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거래량 변화를 보면 수도권(3만2730건)은 지난해 7월보다 111.9%, 지방(4만4120건)은 82.6%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1만465건, 133.1%), 강남3구(1538건, 204.6%)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컸다. /김두탁기자 kimdt@

대기업 임원 평균 52.5세

'첫 별' 51세… 오너 일가는 10년 빨라

대기업 그룹 임원 평균 나이가 52.5세로 조사됐다. '첫 별'인 상무급 임원의 평균 나이는 51세였고 전무 55세, 사장 58세, 부회장 62세 등으로 직위별 3~4살 터울을 보였다. 또 대주주 일가의 상무 평균 나이는 41세로, 대주주가 아닌 임원(51세)보다 첫 임원을 다는 시기가 10년 빨랐다. 남성 임원의 평균 나이는 52.6세로 여성48.3세보다 4살 많았다.

13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49개 기업집단 중 상장사를 보유한 44개 그룹 234개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원 수는 7679명,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이중 대주주 일가는 137명이었고, 여성은 131명(1.7%)이었다.

직위를 없앤 SK와 상장사가 없는 부영·한국지엠·홈플러스·코닝정밀소재 등 5개 그룹, 직위가 공개되지 않는 연구·전문위원 등 연구임원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직위별 평균 나이는 상무(이사)가 51.3세였고, 전무 54.6세, 부사장 55.7세, 사장 58세, 부회장 61.8세, 회장 65세로 3~4살 터울을 보였다. 상무로 임원을 시작해 사장에 오르기까지 약 7년이 걸리는 셈이다.

대주주 일가는 평균 나이가 55세였다. 첫 임원인 상무는 40.2세, 전무 42.2세로 고위임원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지만, 사장은 49.8세로 최고경영자 단계로 올라서는 데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대주주 일가가 아닌 임원의 평균 나이는 52.4세였다. 상무(51.3세)와 사장(58.6세)간 나이 차이는 7살로 대주주 일가보다 짧았다. 또 대주주 일가와 달리 상무→전무(54.7세)→부사장(56.1세)→사장 직위별로 3살 간격을 나타내 단계별 승진 모습을 보였다.

44개 그룹 중 임원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은 56.3세의 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56.1세), 대성(55.5세), 포스코(55.3세), 대우건설·현대중공업(각 55세) 등 중후장대 업종 그룹의 임원 평균 나이가 높았다.

반면 미래에셋은 47세로 가장 젊었고 아모레퍼시픽(48.6), CJ(49.7), 이랜드(50.1) 등 그룹 총수가 젊은 곳이 대체로 임원 평균 나이도 적었다. 이어 10대 그룹인 롯데(51.3세), 한화·삼성(51.4세), LG(51.6세) 순으로 임원 평균 나이가 젊었다.

최연소 임원은 31살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였다.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의 장남 김요한(32) 부사장, 유니온 이건영 회장의 장남인 이우선(32) 상무, 삼천리 이만득 회장의 셋째 딸 이은선(32) 이사가 1982년생이었고 GS 허창수 회장의 장남 GS건설 허윤홍(35) 상무, LS전선 구자엽 회장의 외아들인 LS산전 구본규(35) 이사 등도 30대 초반이었다.

또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의 아들인 금호석유화학 박철완(36) 상무,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36) 상무, 세아그룹 고 이운형 회장 장남인 세아베스틸 이태성(36) 상무,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의 장남 이주성(36) 상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36) 전무 등이 모두 1978년생 동갑내기로 대주주 일가였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아로마 아이템을 한눈에' 글로벌 아로마 멀티 숍 아로마코에스가 오프라인 매장인 선릉 1호점을 오픈했다. /아로마코에스 제공

재위탁 LG전자 협력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게 만든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의 협력업체로,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등을 만들어 LG전자에 납품한다. 지난해 매출액 1745억8800만원, 당기순이익 65억43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LG전자가 발주한 휴대전화 34개 모델, 209개 품목의 제조 위탁과 관련, 도장·코팅 작업을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 재위탁하면서 분기마다 단가를 인하토록 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누적 인하율은 9.7~22.8%, 인하된 총 하도급 대금은 1억3800만원에 달한다.

법 위반 기간 중 주요 품목 단가인하 횟수는 1회 ~ 5회, 그 누적 인하율도 9.7% ~ 22.8%에 이른다.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연도별 매출 의존도가 최고 96.7%에 달하던 코스맥은 경영 악화로 2012년 4월에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맥의 폐업에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신영프레시젼의 납품 단가 인하가 한 원인이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 의사에 반하는 단가인하·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유주영기자 boa@



LG연암문화재단 장학증서 수여 LG연암문화재단은 13일 여의도 LG트윈타워서 '2014 연암장학생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LG연암재단 제공

취업자 증가폭 5개월만에 상승세

전년대비 50만명 늘어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3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취업자가 259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만에 반등한 셈이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에 8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뒤 7월에야 상승세를 탔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38만6000명보다 11만9000명 많은 수준이다.

7월 고용률은 61.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라 3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편취업준비자는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고, 구직단념자는 45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28만2000명 늘었다.

통계청은 6월에 부진했던 도·소매업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제조업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버튼만 누리면 스마트폰 찰칵

앱세서리 리모콘 '코다클릭'



버튼만 누르면 리모컨처럼 스마트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앱세서리 제품이 나왔다.

'비코다(bCODA)' 브랜드로 유명한 이너스텍은 동전크기의 스마트폰 리모콘 '코다 클릭'(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전크기인 이 제품은 한번, 두번, 세번의 짧은 누름과 한번의 긴 누름 등 네 가지 버튼 동작으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물론 음성다이얼링, 메모를 위한 보이스펜, 보이스캐디, 음성시계, 플래시버튼, 무음설정시 폰찾기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광복절 황금연휴, IPTV로 즐기자



통신사, 최신 개봉작 상영 등 프로그램 다채

광복절과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영화 나들이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 '명량'의 1000만 관객 동원 소식도 영화관 발걸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비싼 영화 관람료와 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이 망설여진다면 통신사 IPTV 영화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IPTV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IPTV 상품을 잘 활용하면 미처 챙기지 못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인기 흥행 영화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KT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 '브릭 맨션' 시사회에 회원 100명을 초대한다. 홈페이지에서 브릭 맨션 예고편을 보고 댓글을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올레tv의 경우 자사가 서비스하는 디즈니 채널 시청자를 대상으로 매주 400명에게 TV 포인트 1만점을 주는 행사를 17일까지 한다. 또 프라임무비팩 가입자에게는 최신 개봉작 '해적' 티켓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대대적인 TV 광고 등을 통해 '유플릭스'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유플릭스는 134개 장르의 1만2000여 편에 달하는 인기 영화와 미국 드라마를 무제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전 명작과 최근 개봉작 등 장르와 종류가 다양하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유플릭스 올인원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첫달 이용 요금을 반값만 받는 이벤트를 벌인다.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한 고객은 첫달 이용 요금 9900원에서 4950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가세는 별도다.

SK브로드밴드도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VOD 업데이트를 벌이며 여름철 방콕족 잡기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첫 업스케일링 콘텐츠인 SF영화 '다이버전트'를 UHD 셋톱프리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업스케일링 솔루션이란 풀HD 콘텐츠를 색감과 화질 보정을 통해 UHD 화질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인위적으로 화소를 늘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와 왜곡 현상을 제거하는 등 앞선 기술이 적용됐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동시방영 애니메이션도 초고화질 VOD로 서비스한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이건희 회장 병세 상당히 호전"

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의 병세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는 13일 수요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건희 회장의 병세와 관련,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 언급한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 전무는 "삼성병원 의료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회장의) 구체적인 병세와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구체적인 병세를 설명하는 것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위급 상황을 넘긴 후 심장 혈관 확장수술인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다. 17일로 입원 100일째를 맞는다.

/이재영기자



SK C&C, 중국서 중고차 판매 1호점 오픈 박성철 SK C&C 엔카사업부 대표(오른쪽서 두번째)가 13일 짱요쉐 운봉그룹 총재(오른쪽서 세번째)와 '운봉엔카 홍커우 지점' 오픈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C&C 제공

대학생 스피치 프로젝트 '망치'



독립광고회사인 TBWA코리아(대표 강철중)가 23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대학생 스피치 프로젝트 두번째 이야기 '망치2'를 세상에 선보인다.

14명의 대학생이 7분씩 선보이는 스피치의 다른 이름인 망치는, 그들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나눌만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구성됐다. 지난 서울대 문화관 400석을 가득 메웠던 첫 번째 행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 군대, 수능, 불안을 대하는 자신의 독특한 관점처럼 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다. 2회에서는 대학생만의 독특한 감성, 가혹한 시대를 이기고 자신들만의 새싹을 틔우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만날 수 있다.

박웅현ECD는 "망치2에는 성취한 사람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없다. 다만 빼앗긴 청춘을 안타까워하는 선배들이 마련한 장과 이루지 못한 대학생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뿐"이라며 "이들 이야기는 유명인에게는 절대 들을 수 없어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망치 프로젝트는 매년 2월, 8월에 전국 대학교를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발표 동영상은 TBWA코리아 공식 유투브 계정(http://www.youtube.com/tbwamangchi)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git@

The-K예다함상조 '대박찬스'

국내 상조업계의 선두 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상조회사The-K예다함상조(대표 김호영)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黃金) 대박찬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예다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직접 가입하거나 빠른상담 신청 후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선발된 64명에게 황금열쇠 20돈(1명)을 비롯해 황금열쇠 5돈(3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10명), 5만원권(5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온라인으로 상품 상담 후 가입시 자동 응모되며, 기타 상품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다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월 10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삼성 UHD TV, 유럽 시장 석권

삼성전자 초고화질(UHD) TV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UHD TV 시장에서 62.9%(매출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점유율(55.1%)보다 7.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달성해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UHD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 UHD TV의 유럽 시장 내 압도적 영향력은 유럽의 주요 리뷰 매체의 호평으로도 이어져 삼성 커브드 UHD TV 55인치 'HU8590' 제품이 독일 '테스트(Test)'의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1.6점)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독일 소비자연맹지 '테스트'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이번 평가를 위해 7개 제조사, 24개 2014년형 TV 제품을 직접 수거해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 TV는 1~5위를 모두 휩쓸었으며 이 중 2개 모델은 커브드 UHD TV로 선정돼 유럽 시장에서 커브드 UHD TV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에서 유럽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커브드 UHD TV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광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유럽에서 판매된 UHD TV 중 커브드 UHD TV가 절반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삼성 커브드 UHD TV의 시장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증강현실'로 옷입어 보고 창고 재고 확인

가상과 현실 오가는 3D '입체 시대' 일상으로 성큼… 이케아 카탈로그 등 눈길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가구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원하는 공간에 배치하고, 맘에 드는 옷 열 벌을 10초 만에 입어본다.

현실 세계에 3차원(3D)의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가상과 현실을 절묘하게 오가는 증강현실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버스 정류장 광고, 의상 입어보기 서비스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생활 속 '입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버스 정류장의 투명한 화면에 미확인비행물체(UFO)와 로봇 군단, 거대한 '촉수 괴물'이 등장하자 시민은 보는 눈을 의심하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세계적인 음료 회사 펩시의 옥외 버스 정류장 광고에 대한 반응이다.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으로 놀라운 가구 배치 기술을 선보였다. 이케아의 '2014 카탈로그'에 있는 가구 중 원하는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스캔, 사용자가 찍어 둔 집안 사진 위에 올리면 실제 공간에서 가구를 배치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구를 거실과 침실 등 원하는 공간에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케아의 영국·아일랜드 지역 마케팅 담당자인 피터 라이트는 "증강현실로 구현한 카탈로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밝혔다. 라이트는 "이케아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90개 모델을 카탈로그에 담았다"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향후 모델을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강현실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분야는 패션 업계다. 소비자는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르는 가상 체험을 한 뒤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화상카메라로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뒤 3D 이미지로 제작, 제품의 이미지를 덧씌우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옷 가게에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증강현실은 업무 효율성도 높일 전망이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보쉬'는 창고를 관리하는 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다. '증강현실 안경'을 쓴 직원들이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현장에서 자재를 찾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테스트에서 직원들은 필요한 물건의 위치와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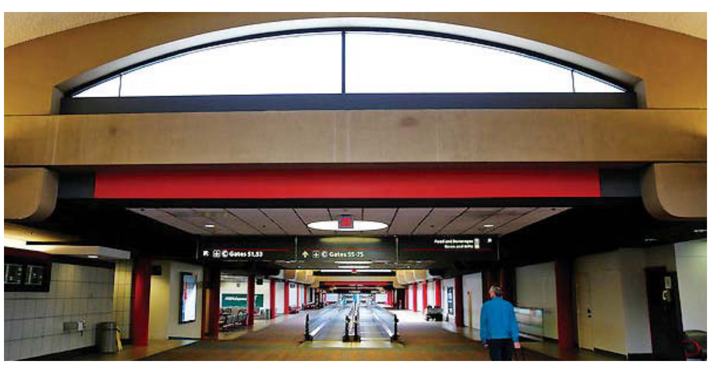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증강현실을 생산라인과 현장 감시 업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기술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스템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5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티셔츠' 오늘은 몇 장 팔릴까?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굼 백화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의류 매장 직원들이 진열대를 정리 중이다. 최근 러시아 주요 상점에서는 '푸틴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

빚더미 美피츠버그공항 땅속이 '보물'

거대 셰일가스층 채굴 매년 205억 추가 수입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 피츠버그 국제공항(사진)의 해결책이 땅속에서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국은 공항 지반 아래 있는 가스층 채굴에 나선다.

가스 채굴이 본격화되면 매년 2000만 달러(약 205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간 공항 운영 예산이 91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피츠버그 공항을 소유한 펜실베이니아주 알레게니 카운티는 공항 아래 거대한 셰일가스층이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공항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몇년 전부터 채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때 매일 600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던 피츠버그 국제공항은 현재 운항편수가 300편으로 줄었다. 승객으로 북적거렸던 공항 통로는 텅 빈 지 오래다.

가스층에 대한 첫 시추는 이번 달 시작된다. 매장량은 펜실베이니아주 전체를 1년 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스층은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나, 덴버 공항에도 있다. 이들 공항도 채굴을 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지는 않다. /조선미기자

앗! 사람이 아니었네 트위터계정 9%'로봇'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트위터 글 중 상당수가 사람이 아닌 로봇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트위터 계정 2억7000만여개 가운데 8.5%인 2300만개가 사람이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계정 전체의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본 결과를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위터 사용자 10명 가운데 1명이 '봇'(bot) 계정이라는 설명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트윗하는 봇계정은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글을 올리거나 팔로워 수를 늘려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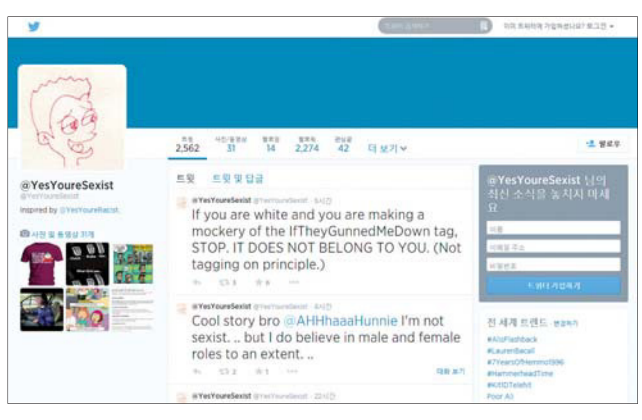
하지만 트위터는 봇 계정 가운데 스팸 트윗을 날리는 등의 '악성 계정'은 지난 한달새 트위터를 사용한 계정 가운데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자동 트위터 계정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재치로 가득해 인기있다.

'당신은 성차별주의자'(@YesYoureSexist)라는 트위터 계정은 "나는 성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올리면 바로 그 글을 리트윗해서 재치있게 응대하기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계탑 '빅벤'(@big_ben_clock) 계정은 런던에서 오후 4시가 되면 "봉 봉 봉 봉"을 트위터에 올려 트위터리안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난 스마트폰으로 교황 만난다!

트위터 소통 눈길… 유투브 동영상도 인기

독실한 천주교도인 조혜경(39)씨는 14~18일 한국 땅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기대가 크다. 권위를 벗어 던지고 낮은 곳, 함께 하는 곳을 향하는 교황의 소탈한 모습에 반해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에는 전국 16개 교구 17만여 명의 초청 대상자를 비롯한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 교황을 직접 만나는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실시간 만남이 가능한 다양한 IT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위터 마니아로 유명하다.

영어(@Pontifex), 스페인어(@Pontifex_es) 등 무려 9개 언어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팔로워만도 1411만 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주십시오"라는 트윗을 공식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이 트윗은 교황의 트윗중 15번째로 많은 1만2000건이나 리트윗되는 기염을 토하기 했다.

국내 트위터리안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한 도중 첫 한국어 트윗으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엔 교황사진 가득

교황의 과거 사진과 동영상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티칸 공식 인스타그램(@newsva)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을 찾은 수많은 인파들의 사진이 가득하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릴 적 사진도 공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youtube.com)에 접속하면 삼종기도와 기자회견, 미사 등 각종 행사에서 교황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출을 담은 영상은 무려 35만7445번나 조회되기도 했다.

◆방한 소식도 실시간으로 확인

교황 방한 관련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피비씨 포프 프란시스(PBC POPE FRANCIS)' 애플리케이션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앱을 터치하면 교황의 중요 일정을 실시간 중계로 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둘러볼 것으로 알려진 성지순례길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지순례길' 앱을 실행한 후 특정 성지에 도착하면 해당 장소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블루투스(근거리무선통신망)를 이용해 위치와 상황에 맞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순례자들이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했고 성지순례길 경로찾기 기능도 들어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이코메트리와 웨어러블기기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사전적 의미는 '시계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면 소유자나 물건의 과거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적인 행위'다.

네덜란드의 투시능력자 G. 크로아젯은 이 분야의 스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국내 유명 출판사 25곳이 종이책과 디지털을 연계하는 융·복합 서비스 '더책'을 상용화한다.

책 표지에 QR코드와 같은 디지털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만 있으면 '보는 책'이 '듣는 책'으로 변한다. 독자가 책에 있는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오디오북이나 기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나 저장장치가 필요없다. 스마트폰과 책만 있으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사물에 손을 대는 사이코메트리처럼 스마트폰을 책에 태그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계면제어연구센터 송용원 박사팀은 한국판 구글렌즈를 개발했다.

이 렌즈는 착용만 하면 당뇨를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이다. 눈에 닿는 순간 사람의 정보를 읽어내는 또다른 사이코메트리다.

이와 함께 기초눈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어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

눈꺼풀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발전기와 배터리를 탑재해 별도의 외부연결 장치가 필요없다. 즉 렌즈 자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

상상력을 키워보자.



스마트폰의 특정 부위에 센서가 있다고 하자. 이 스마트폰을 맥박이 뛰는 손목에 대면 혈압이 액정에 나타나고 그 동안 측정된 수치가 그래프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소변검사용 키트를 스마트폰의 입력 단자에 꽂는다. 자신의 소변을 5초간 키트에 묻히면 병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집에서 얻을 수 있다.

스마트헤어밴드는 어떨까. 주인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그때그때 맞는 음악을 들려주고 잠자기 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α파 사운드를 송출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이코메트리를 닮은 IT의 미래는 무엇인가.

바보상자 TV, 만물상자로 변신

'역린' 비롯한 최신영화 관람…'샵밥' '세포라' 해외직구도 리모콘으로

'바보상자'로 놀림받던 TV가 '만물상자'로 거듭나고 있다.

최신 영화를 보여줘 극장 역할을 하는가하면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돕기도 한다. 똑똑한 TV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세상이다.



◆우리집 거실이 영화관!

최신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지만 집에서도 리모콘 동작 한 번에, 그것도 공짜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 고객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하는 '시네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90일간의 가족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이벤트. 2014년형 스마트 TV를 구매한 고객은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를 볼 수 있다.

리모컨에 '무료영화 보여줘'라고 말하면 '마마' '노예12년' '친정엄마' '파파' '결혼전야' '와즈다'등의 가족 영화 1편을 매주 삼성 스마트 TV로 즐길 수 있다.

또 스마트TV의 인기 영화 앱 'See2'로 '역린' '황제를 위하여' '론 서바이버' '폼페이: 최후의 날' 등의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무료 관람권을 추첨으로 최대 4개까지 증정한다.

◆해외직구도 리모콘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파에서 리모콘으로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TV는 PC나 스마트폰에 비해 디스플레이가 크기때문에 제품을 살필 때 편리하다.

샵밥(http://www.shopbop.com/)은 국내 여성들에게 가장 인지도 높은 해외직구 쇼핑몰이다.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한국까지 직배송이 가능해 배송대행서비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노드스트롬 (http://shop.nordstrom.com/)도 국내 여성들이 많이 찾는 쇼핑사이트다.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여성도 많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장품 멀티숍인 세포라 (www.sephora.com/)가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 직배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10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1만5000원의 배송비로 구입 가능하다.

◆중드와 일본 애니매이션도 무료

TV에서 인터넷 미디어 곰TV를 구동하자. 해외드라마 마니아들을 위해 한류스타 박신혜 주연의 대만드라마 '선풍관가'를 비롯해 중국드라마 6편을 전편 무료로 볼 수 있다.

6개 타이틀은 '선풍관가' '취후결정애상니' '아내의 유혹(중국판)' '비자영웅(정의로운 두 형사)' '신백발마녀전' '견우적하천(영화 '엽기적인 그녀' 리메이크)' 등이다.

해당 콘텐츠는 곰TV 앱과 웹에서 9월14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곰TV는 일본 애니매이션 마니아들을 위한 일본 애니 전편무료 독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갈릴레이 돈나' '마기' '로보틱스 노츠' '무장신희' 등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을 곰TV에서 전편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기간은 콘텐츠에 따라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박성훈기자

‘태양의 나라’ 페루를 만나다!

TvN ‘꽃보다 청춘-페루’ 편이 방송되면서 ‘태양의 나라’ 페루가 인기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페루 여행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페루여행을 하면 꼭 들러야 할 페루의 명소를 소개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마추픽추·나스카 라인 등 고대 문명 접할 수 있는 신비의 땅

◆마추픽추의 도시 ‘쿠스코’

먼저 마추픽추의 도시 쿠스코가 있다. 해발 3399m에 위치한 고대 잉카 제국의 수도로 우아타나이강과 툴마요강 사이에 끼어 있어 하늘에서 보면 퓨마처럼 가늘고 긴 도시의 모양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아르마스 광장, 대성당, 산토 도밍고 교회 등이 있으며 잉카 시대의 수도였던 만큼 도시 곳곳에는 잉카 시대의 건축물과 박물관이 가득하다.

쿠스코에서는 대표적인 잉카 문명의 유적 마추픽추를 가볼 수 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잉카 제국의 마지막 근거지로 밀림지대의 산 위에 세워져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마추픽추에 가는 방법으로는 잉카 트레일을 통하는 트레킹 코스를 추천한다.

게다가 쿠스코에 위치한 동심원 형태의 계단식 농경지 모라이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족한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농경지로 해발 3500m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아래와 위의 온도 차가 무려 15도까지 난다. 이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에 재배하는 작물이 달라 색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각 단을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돌 벽에 박힌 돌 계단 역시 매력적이다.

모라이 인근의 살리네라스는 해발 3000m 산골짜기 비탈에 위치한 산 속의 소금 광산이다. 물이 흐르며 암염이라는 광물을 녹여 소금물이 됐고 지역 주민들은 논 형식으로 된 살리네라스에 소금물을 가둬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만든다.

◆원형을 간직한 ‘나스카 라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동남쪽으로 370㎞ 지점에 위치한 도시 나스카는 나스카강 유역에 위치한 오아시스의 중심지다. 해발 고도 7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9세기경 번영했던 나스카 문명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남아메리카의 생생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나스카 문양 혹은 나스카 라인으로도 잘 알려진 나스카 평원에 꼭 가봐야 한다. 나스카강과 인헤니오강에 둘러쌓인 평원 지대에 펼쳐진 나스카 라인은 사막 표면에 넓게 그려진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 70개 이상의 동식물과 300개 이상의 기하학 문양들이다. 내륙의 건조지대에 위치해 비가 잘 오지 않는 기후적인 조건으로 아직까지 그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태양 빛이 잘 들어 그림의 선 그림자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오전 7~10시 사이가 투어하기에 가장 좋다. 이 역시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됐다.



페루에서는 잉카 제국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마추픽추(사진 왼쪽 위)와 모라이(오른쪽)·살리네라스(가운데), 그리고 나스카 문명의 생생함이 담긴 나스카 라인(왼쪽 아래)을 만날 수 있다. /페루관광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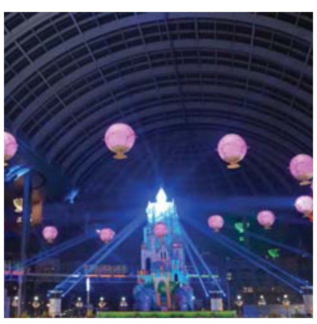
광복절 연휴는 롯데월드에서 짜릿하게~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 1억 경품 대잔치도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광복절 황금연휴를 맞아 시원하고 짜릿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15일 저녁 어드벤처 내 가든 스테이지에서는 불타는 밤을 위한 ‘핫 썸머 콘서트’가 준비된다. 힙합 뮤지션 배치기와 신예 래퍼 RP가 가든 스테이지를 힙합 클럽으로 물들이며 신인 그룹 립 서비스와 걸그룹 딜라잇의 무대도 이어진다.

또 멀티미디어 쇼와 퍼레이드가 접목된 신개념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렛츠 드림’은 상공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랜턴(Flying Lantern)과 360도 홀로그램 효과 등으로 어드벤처 전체를 화려한 꿈의 세계로 안내한다.



방문객을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야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렛츠 드림’의 한 장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제공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신비한 요정의 숲을 배경으로 향기 효과가 어우러지는 신규 패밀리 후룸라이드 ‘드림 보트’가 어울린다. 악마와 유령들이 득실거리는 무덤을 탈출하는 스토리로 구성된 공포 체험시설 ‘툼 오브 호러’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다.

이와 함께 어드벤처는 8월 한 달간 입장객을 대상으로 ‘정호나이스 1억 경품 대잔치’를 실시한다. 응모권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정수기 휘카페, 이과수 공기청정기 등이 증정된다. 또 알뜰한 나들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무료 무선인터넷 ‘세계 최고’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료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등 총 37개국, 115개 국제공항의 무선인터넷 보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86.9%에 해당하는 98개 공항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절반 정도가 시간 제한이나 용량 제한 없는 무제한 무선인터넷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공항의 무료 무제한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8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인천·김포·제주 등 8개 국제공항 모두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공항 서비스(ASQ)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은 최대 1Gbps의 속도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선을 운항하는 국내 7개 공항에서도 모두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뉴질랜드 등은 모두 무료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여권을 스캔하거나 휴대폰 전화번호로 접속번호를 부여 받아야 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북미 지역의 국제공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비해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낮다. 유럽은 전체 조사 대상인 22개국 70개 공항 가운데 무료 무제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재용기자

천주교 성지 알리는 홍보물 발간

관광공사, 교황방한 계기 순례코스 정보도 수록

한국의 숨겨진 천주교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리플릿이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방문지를 포함한 주요 천주교 성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 소개하는 리플릿을 영어와 이탈리아어 2개 언어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홍보물은 교황 방문 일정을 따라 행사 의미와 방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천주교 성지와 주변 관광지를 지도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외국인 순례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미사가 가능한 성당, 간단한 한국어 미사 어구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교황 방한을 계기로 해외에서 상품화된 관광코스 정보와 서울시·충청도·제주도에서 개발한 천주교 순례코스 정보도 함께 수록됐다.



관광공사는 교황 방한 기간 중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는 e북 형태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유통업계, 이른 추석 발빠른 마케팅

실속형 제품 늘리고 할인 프로모션 진행

38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추석(9월 8일)을 앞두고 미리 추석선물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유통업계가 명절 대목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지출이 많은 여름휴가철 직후여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저가·실속형 제품 물량을 늘리고 할인 폭을 높여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사조해표는 1만~5만원대의 추석 선물세트 100여종을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안심따개 적용으로 안전성을 강화한 참치캔과 연어캔, 100% 우리돼지 통살을 사용해 맛과 식감이 뛰어난 캔햄 '안심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연어캔 선물세트 생산수량을 지난 설보다 약 30% 가량 늘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4일까지 CJ온마트와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약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를 통해 스팸과 알래스카 연어, 고급유 등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다. 또 CJ온마트에서 스팸연어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동원F&B는 참치캔·김·연어캔·홍삼 등의 다양한 '건강' 콘셉트의 식품들로 구성된 추석선물세트 200여종을 내놨다. 자사 식품 전문 쇼핑몰인 동원몰에서는 신용카드 할인 프로모션과 10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별도의 '추석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추석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메트로신문 사진DB

대상 청정원은 최저 8000원에서 최고 11만5000원까지 다양한 금액대로 선택의 폭을 넓힌 추석선물세트를 대거 출시했다. 선호도가 높은 3만~5만원대의 중저가 선물세트를 확대하고 올리고당 등 신규 구성품을 추가해 다채로운 세트 구성에 주력했다.

명절 선물로 꾸준히 각광 받아온 건강기능 식품 업계도 연령대별, 가격대별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 이벤트를 열고 '이른 추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LG생명과학 프리미엄 건강기능 식품 브랜드 리튠은 리튠 공식 온라인몰에서 '참 좋은 선물' 추석선물세트 기획전을 연다. 이 외에도 연령대별 건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기획전과 추석 선물 예산에 따른 기획전을 준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협홍삼 '한삼인'은 9월 10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가위 이벤트를 열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프라임' '보윤' '연홍' 세 종류의 추석선물세트도 한정으로 선보인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14일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일제히 추석선물 예약 판매에 돌입해 경쟁 중이다. 이번 추석에 하반기 매출의 성패가 달린 만큼 추석 대목을 실적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예년보다 예약판매 할인 폭을 높이고 품목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명절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복숭아, '여름 대표 과일'로 여름철 대표 과일이던 수박이 복숭아에게 왕좌를 내주고 말았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같은기간(8월 1일부터 11일) 자사의 과일 매출을 집계한 결과, 복숭아가 처음으로 여름 대표과일인 수박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마트 제공

쿠팡, "올여름 인기 식품 키워드는 'N.E.E.D'"

생필품·유아식 큰 인기

소셜커머스 쿠팡(대표 김범석)은 올여름 인기 식품 트렌드로 'N.E.E.D'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이 지난 6~7월 식품 판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쌀·생수·라면 등의 생활 필수 식품(Necessaries)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유아용 음식(Enfant)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류와 즉석식품(Easy to eat) ▲여름철 몸매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식품(Diet Food)이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인기 식품 10위 안에 간식류와 다이어트 식품이



8개 포함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유아식과 생활 필수 식품이 대거 포진됐다. 올여름은 특히 생수·쌀·커피와 라면 등 부피가 크고 무겁지만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생활 필수 식품들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주부 고객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어린이·유아용 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육아로 바쁜 엄마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편리한 모바일로 기저귀, 물티슈 등의 육아필수품부터 이유식, 유아용 간식 등의 식품까지 구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확산되고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e커머스가 식품의 주요 쇼핑채널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670% 가량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판매액 중 모바일 판매액 비중은 20%p 이상 상승했다. /정혜인기자

동아오츠카, '소이조이 피넛' 출시

땅콩 30개의 풍부한 단백질과 고소한 맛 자랑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뉴트리션바 브랜드 소이조이(SOYJOY)가 '소이조이피넛'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대두와 함께 땅콩이 통째로 들어가 한층 진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설탕 대신 아가베시럽을 넣어 당도를 1.5배 높이면서 칼로리는 반으로 줄였다.

또 제품을 오븐에 구워 트랜스지방이 없고 땅콩 30개에 준하는 대두 단백질 7g이 함유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권보경 브랜드 매니저는 "소이조이는 콩을 통째로 구워먹는 새로운 타입의 영양식품"이라며 "이번 새로운 맛 출시로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강강술래 "휴가 피로, 문화로 힐링~"

정동극장 '배비장전' 티켓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ullai.com)가 여름휴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고객들의 심신 치유를 위해 정동극장의 전통무용극 '배비장전' 티켓을 증정하는 문화힐링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시대 풍자문학의 대표작인 동명의 고전소설을 재창작한 '배비장전'은 무용과 음악·영상·마임을 융합한 무용극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국내 전통극 상설공연 사상 최초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 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3일 당첨자(20명·1인2매)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오는 20일까지 주문할 경우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예약 할인전'을 벌인다.

사전예약 기간에 인기품목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kg) 6만3000원, 강강양념1호(16대) 8만1000원, 강강양념2호(24대)는 11만7000원에 판매한다. 인기메뉴로 구성된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는 8만1000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



대+한우불고기1kg)는 11만7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는 16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또 한우정성1호(등심+국거리+불고기·각0.7kg·13만5000원)와 한우정성2호(등심1.4kg+국거리0.7kg·17만1000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안심0.7kg·21만6000원) 등 한우프리미엄세트도 초특가로 선보인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SSing
new metro

글로벌 No.1 도시철도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1974.8.15 서울지하철 1호선인 서울역-청량리역이 개통되고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메트로를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손흥민 친필 사인볼 게토레이, 증정 행사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오는 9월 30일까지 스포츠음료 게토레이의 붐업 조성을 위해 '게토레이 인증샷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게토레이의 콘셉트 '처음부터 끝까지'와 게토레이를 통한 수분과 미네랄 재충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광고 모델인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다. 주 타깃인 20~30대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게토레이를 마시는 장면을 담은 인증샷을 이벤트사이트(www.gevent.co.kr)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등 손흥민 친필 사인볼(30명), 스마트 워치(50명), 스포츠 상품권(5만원 상당, 500명), 게토레이 블루볼트 6본입 1팩(3000명) 등 총 358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prms@





(왼쪽부터) 소녀시대 티파니, 레인보우 재경, 정준영. /루이까또즈-질스튜어트 액세서리 제공

공항패션의 완성은 '가방'

티파니·재경 숄더백, 정준영은 백팩으로 포인트

공항 패션의 키워드는 '자연스러운 세련미'다. 장시간 비행에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감각'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방'은 공항 패션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최근 해외 화보 촬영·콘서트 등으로 공항을 자주 드나드는 아이돌 멤버들 역시 가방으로 엣지를 준 공항 룩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패션매거진 보그걸 화보 촬영을 위해 미국 LA로 떠난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는 섹시한 공항 패션으로 화제를 모았다.

티파니는 이날 어깨를 살짝 드러낸 오프숄더 티에 아찔한 데님 핫팬츠를 입어 섹시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한 단화를 신고도 일자로 쭉 뻗은 각선미를 과시하며 주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티파니는 캐주얼한 의상과 잘 어울리는 그레이 색상 숄더 백을 들어 시크함을 강조했다.

온스타일 '겟잇뷰티'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걸그룹 레인보우 재경 역시 화이트 원피스와 스니커즈로 발랄한 공항 패션을 선보였다. 여기에 빅 프레임 선글라스와 상큼한 민트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다.

4차원 매력으로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중인 정준영의 개성 있는 공항 룩도 눈길을 끈다.

큰 키에 완벽한 비율을 갖춘 정준영은 블랙 스키니진와 화이트 니트를 입은 캐주얼한 차림에 블랙 선글라스로 무심한 듯 신경 쓴 패션을 연출했다. 포인트 아이템으로는 블루 컬러의 백팩을 매치해 세련된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유모차 콜라보레이션 '전성시대'

자동차부터 예술작품까지 협업 영역 확장

의류·화장품·식품 등 기존 유통업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 육아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육아용품 업체들이 유명자동차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은 제품은 소장가치를 높이고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다는 장점을 들어 콜라보레이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그 중 유모차는 기능만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협업 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내에 처음 선보인 '미니버기'(사진)는 BMW 미니 쿠퍼 자동차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컴팩트형 디럭스 유모차다. 미니 쿠퍼의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170도 등받이 조절 가능 시트, 버켓 시트의 안락함과 쿠션감을 영유아 발달구조에 맞춰 유모차 설계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죽 소재의 캐노피와 손잡이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두 달 만에 완판됐다.



예술 작품을 입은 유모차도 눈길을 끈다.

'부가부 앤디 워홀 바나나 콜렉션'은 팝아트의 대표 주자 앤디 워홀의 1966년 작품이자 '벨벳 언더그라운드&니코'의 첫 번째 앨범 커버로 사용된 상징적 프린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노란색 바탕에 앤디 워홀의 바나나 프린트가 썬 캐노피·배시넷·시트 패브릭 뒷면에 걸쳐 이어져 톡톡 튀는 개성을 중시하는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맥클라렌 'V2 캐스 키드슨 스프레이 플라워'는 절충형 유모차 '퀘스트스포츠'에 런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캐스키드슨의 플라워 프린트를 접목시킨 제품이다. 잔잔한 꽃무늬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외출 시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박지원기자



'처음처럼' 신민아 첫 동영상 롯데주류는 13일부터 배우 신민아를 앞세운 '처음처럼' 신규 동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은 '동창편'과 '연인편' 등 생활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롯데주류 제공

5060세대, 반려동물 시장 큰손으로

은퇴한 장년층, 반려동물과 적적한 일상 달래기 많아

은퇴한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반려동물 시장의 큰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13일 옥션에 따르면 7월 애완동물 상품 카테고리에서 5060세대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성장해 같은 기간 같은 카테고리 전체 매출 성장률(15%)을 두 배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5060 세대가 크게 늘어 애묘 상품 판매량은 전년보다 50% 신장했고 애견 상품은 25% 판매가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산 상품으로는 프리미엄 애견사료(690%)·자동 급식기(345%)·영양제(300%)·애견간식(290%)·샴푸/린스(275%)가 1~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헤어 액세서리(220%)와 애견 가구(215%), 수제 간식(190%) 등이 10위권 내에 오르는 등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가의 반려동물 상품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연 옥션 애완팀장은 "은퇴한 50대 이상 장년층이 자녀를 분가시키고 적적한 일상을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50대 이상의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장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급 먹거리와 가구, 패션 제품 등에 소비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metro entertainment E



운명처럼 만난 작품, 배우로서의 한발짝

영화 '명량'서 이순신 장군 아들 연기한 권 율

배우라면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명량'(감독 김한민)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를 연기한 배우 권율(32)도 영화를 향한 1000만 관객의 사랑에 더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아쉬움과 부족함을 되새기고 있다.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가 그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명량'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으로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기보다 인간적인 고뇌를 담아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낸 결과였다.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는 그런 장군의 깊은 고민을 관객들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권율은 이회를 만나 "운명처럼 찾아올 배역"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 대선배인 최민식과 연기한다는 것 또한 "배우로서 걸어갈 먼 길에서 나 자신을 잡아줄 중심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현실로 만들었다. 물론 부담감도 컸다. 폭발적인 감정을 보여주지 않기에 자칫 밋밋해질 수도 있는 캐릭터였다. 그럼에도 권율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 아들의 진심을 생각하며 연기에 임했다.

"이회는 관객에게 '장군님은 왜 싸워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이회에게 아버지를 말리고 싶은 마음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장수로서 전쟁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야 관객들이 이회의 시선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곱씹으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고뇌 바라보는 아들역
아버지의 깊은 마음 헤아리고자 노력
"부족함 채워 장점 만드는 배우 될래요"

이순신 장군의 고뇌는 전쟁을 앞두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최민식과 마주하며 연기를 펼친 이 장면은 권율에게 많은 배움이 됐다. "선배님의 유려한 연기력보다 놀랐던 것은 자신보다 작품이 돋보이길 바라는 선배님의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그 진심이 현장에서도 유지되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모습에 많은 걸 느꼈죠. 선배님의 감정을 안고 가는 것이 벅찼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려고 했어요."

권율은 '명량'을 촬영하는 동안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다. 매일 전쟁터에 나가듯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려 했던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영화에 담긴 아쉬움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영화 속에서 장군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좇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더 폭발력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쉬움을 거울로 삼아 부족함을 채워 장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데뷔 이후 7년 남짓 권율이 보여준 연기 활동 때문이다. 2007년 SBS 시트콤 '달려라 고등어'로 데뷔한 그는 이후 '비스티 보이즈' '내 깡패 같은 애인' '피에타' 등의 영화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았다. 한때는 청춘스타를 꿈꾸며 조급함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반짝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려고 땀흘리고 있다.

'명량'을 촬영하면서 권율은 최민식으로부터 두 가지 조언을 얻었다 ."진심으로 연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우로서 떳떳한 에너지와 아우라가 풍기게끔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라"는 말이었다. 최근 KBS2 일일드라마 '천상여자'를 마친 뒤 그는 한 달 반 남짓한 휴식 시간을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데 썼다. 그렇게 권율은 배우로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 "예술적인 영감은 앞으로도 계속 쌓아가야겠죠. 그런 영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작업을 해나가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김아람

징역 2년 구형에 강용석 방송 '빨간불'

강용석(사진) 전 국회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방송 활동에 위기를 맞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강용석은 JTBC '썰전',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에 출연 중이며 '더 지니어스3'에 참가자로 알려졌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하차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한 관계자는 "하차 논의는 선고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민기자

"클라라 첫 인상 느끼… 갈수록 담백"

연예인+디자이너 경쟁 '패션왕코리아2' 스타 이색 조합·개성 눈길

신동엽이 그룹 제국의 아이들 광희의 씀씀이를 우려했다.

13일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예능프로그램 '패션왕코리아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조세호는 "광희가 좋은 아이템을 많이 착용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엽은 "과거 사례를 보면 광희같은 친구들은 15년 후 사라져 있다"고 했고, 광희는 "돈을 모아놓고 있다"고 신동엽의 우려를 부인했다.

홍진경도 광희에 대해 "오늘 옷을 가장 멋있게 입었다"며 "청바지에 멘티, 재킷을 입었는데 스타일리시하다. 옷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동엽은 또 "적당히 해야 15년 후에 거지가 되지 않을 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패션왕코리아 시즌2'는 연예인과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 팀이 돼 직접 의상을 만들어 우승자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신동엽을 메인 MC로 연예인 9명(클라라·정준영·광희·선미·조세호·홍진경·블락비지코&피오·윤진서)과 디자이너 7명(최범석·한상혁·곽현주·양희민·송혜명·고태용·로건)이 함께한다.

이날 7팀은 패션 콘셉트를 설명했다. 클라라와 팀이 된 최범석은 "놀면서 디자인하는 게 콘셉트"라며 "클라라는 첫 인상이 느끼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담백하고 착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됐다. 사무실 밖에서 즐기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정준영과의 작업을 "하이패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작진이 우리를 한팀으로 묶은 건 4차원 연예인과 젠틀한 디자이너의 만남을 고려했던 거 같다"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코·피오, 고태용 팀은 '막내의 반란'을 예고 했다. 고태용은 "저희는 프로그램의 막내"라며 "처음으로 패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여자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미·양희민 팀의 콘셉트는 '우리 선미'다. 양희민은 "첫 만남 때부터 선미가 자신의 패션 스크랩북을 보여줬다"며 "선미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게 진정한 협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이상수 CP는 "K팝과 드라마에 이어 한류는 패션도 이끌 것이다"며 "벌써 중국 측과 판권을 두고 협상 중이다. 지상파 최초로 패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패션왕 코리아 시즌2'는 오는 16일 밤 12시10분에 첫 방송된다.



13일 오후 서울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TV '패션왕 코리아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방송인 클라라가 워킹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손담비의 완벽한 몸매관리 비결은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16일 첫 방송) 출연을 위해 철저하게 외모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13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족끼리 왜 이래' 제작발표회에서 "오후 6시 이후로는 안 먹고,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며 "현재 46kg이다. 가수 활동할 때보다 6~7kg 정도 빠진 것 같다. 춤을 예전보다 안 추기 때문에 요즘은 살이 잘 안빠진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

'힐링캠프' 이지아 정면반박

서태지, "미국서 평범한 결혼생활"



가수 서태지(사진)가 전처인 배우 이지아가 방송에서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태지는 13일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22세이던 1993년, 16세의 이지아를 그의 친언니를 통해 알게 됐고 당시 결혼이나 동거를 한 것은 아니다"며 "그로부터 3년 후(1996년) 가요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양가 부모의 허락하에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1997년 10월 성인의 나이로 혼인신고를 한 뒤 2년 7개월의 결혼 생활을 거쳐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합의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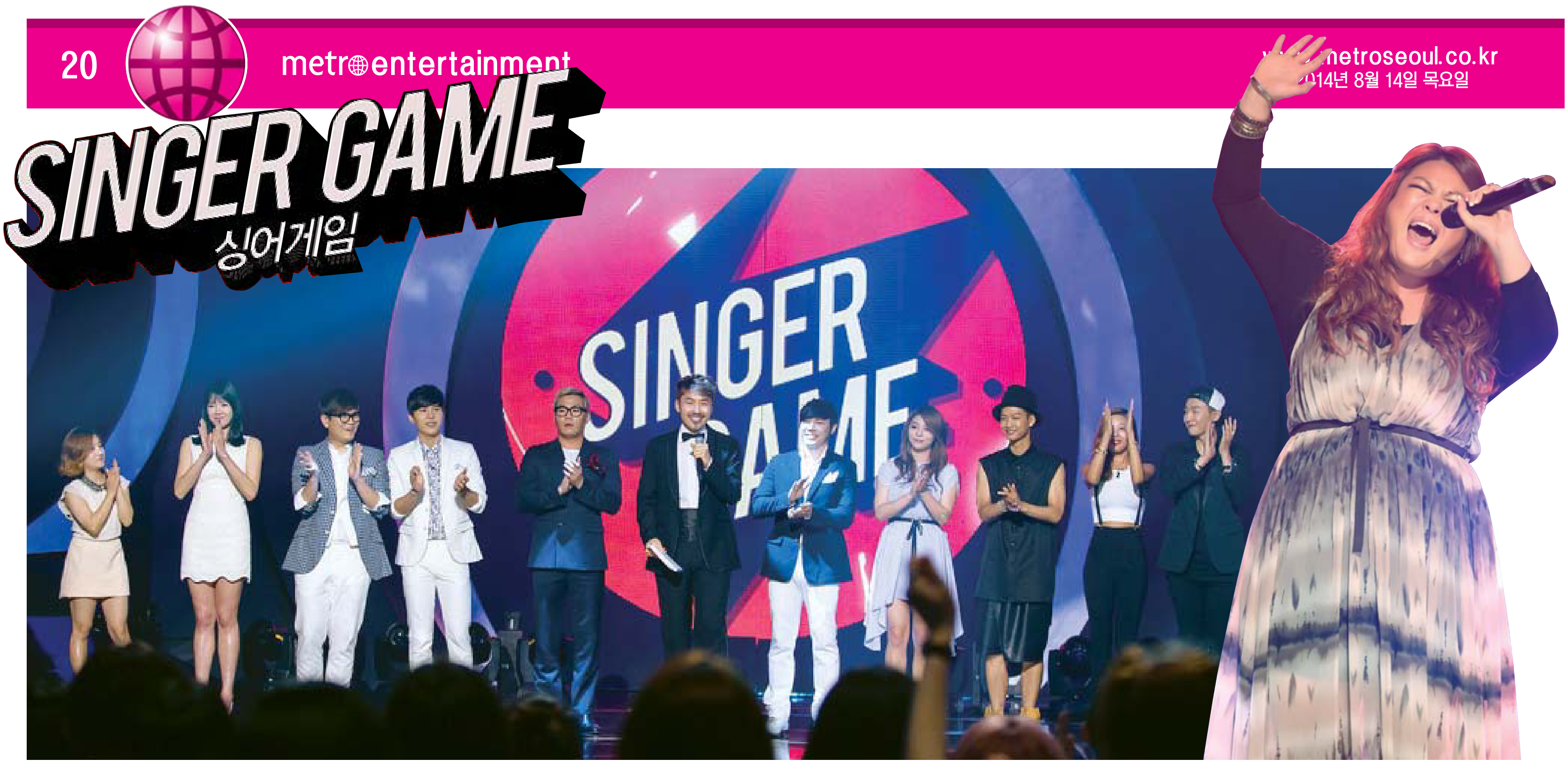
이지아는 1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 서태지와의 결혼을 둘러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태지는 이지아가 "큰 비밀을 안게 됐고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은 산에서 내려온 다람쥐한테조차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등의 말을 한 것에 대해 "지인들은 우리의 교제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태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양가 부모님과 가족, 친척들, 각자의 친구들도 미국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며 "서로 동의 하에 언론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많은 지인들은 우리의 교제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모두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
ALL FOR ONE, ONE FOR ALL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
조선낭만활극
명품 드라마 <나인>의 콤비 김병수 연출 | 송재정 극본
기획 tvN | 제작 JS pictures 초록뱀 미디어 | 제작지원 LG G3 Duria | 한복협찬 나래솔 | 장신구협찬 민휘아트주얼리 | 분장협찬
8월 17일 [일] 첫 방송! tvN



나날이 진화하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추석특집·'싱어게임' 레이블 대결… 다양한 포맷 재미 선사

지난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에서 시작된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원조격인 '나는 가수다'가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의 대결로 압축된다면 이후 생겨난 프로그램은 출연진·무대 연출·경연 방식 등에서 차이를 둬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방송 초기 아류 논란에 휩싸였던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는 무명가수부터 아이돌까지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해 가창력은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선보여 시청률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특히 지난 4월 방송된 이선희 편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무명 가수였던 베베미뇽의 벤은 방송을 통해 '리틀 이선희'라는 수식어를 얻고 노래 대결 프로그램의 단골손님이 됐다.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은 최근 '100초전'과 '싱어게임'을 선보이며 '보컬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방송된 4부작 '100초전'은 다양한 세대의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무대 위에 올라 오직 노래만으로 현장 평가단의 선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출연 가수들 대부분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로커 김경호는 걸그룹 크레용팝의 '어이'를 부르며 귀여운 안무까지 선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싱어게임'은 가수 개인의 대결이 아닌 두 개의 소속사(레이블) 간의 대결이다. 프로그램은 각 레이블 소속 가수들이 총 3라운드에 걸쳐 각 주제에 맞는 무대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단 100명의 투표로 승패를 가르며 많은 표를 얻은 레이블이 승리와 함께 상금도 차지한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은 JTBC '히든싱어'는 초대 가수와 모창 대가들의 대결이다.

초대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똑같이 흉내 내는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얼굴을 숨긴 채 오직 노래 실력으로만 본인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시즌에 출연한 조성모는 2라운드에 자신의 데뷔곡 '투 헤븐'을 부르고 탈락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우승은 조성모보다 더 조성모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일반인 참가자가 차지했다.

또 지난 시즌 휘성 편에 출연한 한 참가자는 휘성과 똑같은 목소리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현장에서 태진아에게 발탁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원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는 다음달 3일 추석 특집편 녹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시나위·박기영·더원·플라이투더스카이가 출연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위너 실시간 이어 일간차트 싹쓸이

해외 4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서도 1위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그룹 위너가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 이어 일간차트 1위를 석권했다.

12일 자정에 공개된 위너 데뷔 앨범 '2014 S/S'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9개 음원 사이트 실시간차트 올킬은 물론 다수의 음원차트에서 전곡 줄세우기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다.

위너는 13일 멜론, 벅스, 엠넷,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올레, 지니, 몽키3 등 8개 음원 사이트의 일간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다음, 올레, 벅스, 지니, 네이버뮤직 일간차트에서는 수록곡들이 줄줄이 톱10에 오르는 '줄세우기'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국내뿐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4개 국가 아이튠스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공허해' 뮤직비디오도 인기다. 음원 발표와 함께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13일 오후 2시 기준 117만 뷰를 돌파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틀곡 '공허해'는 이별 후 공허함을 담아낸 랩, 힙합 곡이다. 위너 멤버 송민호와 함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인 B.I.와 바비가 작사를 맡았고, B.I가 작곡을 맡았다.

'공허해'에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타이틀곡 '컬러링'은 강승윤, 송민호, 이승훈이 작사하고 강승윤이 메인 프로듀서로 나서 만든 곡이다. /유순호기자 suno@

'히든싱어3' 화려한 라인업 중무장

이선희·이재훈·박현빈 녹화완료
플투 환희·소시 태연도 출연 예정

JTBC '히든싱어3'가 화려한 게스트로 시청자 잡기에 나섰다.

1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JTBC '히든싱어3' 제작발표회에는 방송인 전현무, 보컬트레이너 조홍경, 조승욱 PD, 더 히든이 참석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앞서 공연을 선보인 더 히든은 조성모 편 우승자 임성현, 신승훈 편 우승자 장진호, 김범수 편 준우승자 전철민, 윤민수 편 준우승자 김성욱으로 이뤄진 그룹으로 '히든 싱어'를 통해 가수의 꿈을 이뤘다.



1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JTBC '히든싱어3'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조승욱 PD, 김성욱, 임성현, 조홍경, 전현무, 전철민, 장진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JTBC

조 PD는 "1회 이선희 편, 2회 쿨의 이재훈 편, 3회 박현빈 편 녹화를 마쳤다"며 "이선희씨의 경우 섭외에만 2년이 걸렸다. '히든싱어' 파일럿 당시 예능국장님이 출연을 제안했는데 데뷔 3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와 시기가 잘 맞물려 출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라드·댄스·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을 섭외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아직 녹화를 하진 않았지만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환희와 소녀시대 태연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명의 보컬이 속한 그룹의 멤버 한 명이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희만 섭외한 이유에 대해 조 PD는 "환희와 브라이언 모창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었는데 두 분의 무대를 동시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브라이언 모창을 잘 하시는 분보다 환희를 잘 하시는 분이 더 많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무는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조용필 선생님이 나와 주셨으면 한다"며 "서태지씨도 나와서 '컴백홈'을 불러줬으면 한다. 양현석·이주노씨는 패널로 초대하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히든싱어3' 이선희 편은 16일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지친 삶에 희망 전하는 음악의 힘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비긴 어게인

살다보면 한 번쯤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진심은 언제나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질 때, 혹은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산산조각 날 때 사람들은 더없는 외로움에 빠져든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 아픔을 누군가 알아줄 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는다. '비긴 어게인'은 삶에 희망을 전하는 음악의 힘을 그린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은 퇴물 신세가 돼버린 음반 프로듀서 댄(마크 러팔로)과 록 스타가 된 남자친구와 이별한 싱어송라이터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다. 90년대 명성을 떨쳤던 댄은 진심을 지닌 음악의 힘을 믿는다. 그러나 스타만을 바라는 음반업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운영하던 레코드사에서도 해고당한다.

지하철에 몸이라도 던지고 싶은 인생 최악의 순간, 댄은 우연히 찾은 클럽에서 도시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레타를 만난다. 영화는 댄과 그레타가 밴드와 함께 뉴욕 시내를 스튜디오로 삼아 데모 음반을 녹음하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원스' 존 카니 감독 따뜻한 시선 담은 착한 영화

존 카니 감독은 전작 '원스'에서 가난한 두 남녀가 음악을 통해 마음이 맞닿는 순간을 통해 깊은 여운을 선사했다. 음악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교감은 '비긴 어게인'에서도 중요한 테마다.

영화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댄과 그레타가 함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뉴욕의 밤거리를 걷는 장면이다. "음악은 지극히 따분한 일상도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댄의 대사처럼 영화는 익숙한 일상마저도 특별하게 만드는 음악의 힘을 설득력 있게 그린다.

로맨스에 방점을 뒀던 '원스'와 달리 '비긴 어게인'은 음악과 삶이라는 보다 큰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전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댄과 그레타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착한 태도가 그 증거다.

거대 도시, 혹은 관광지로만 각인된 뉴욕을 사람들의 삶이 녹아든 공간으로 바라보려는 소탈한 시선도 인상적이다. 스타만을 바라는 음반 업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은 음악에 대한 존 카니 감독의 깊은 애정이 잘 담겨 있다.

'비긴 어게인'은 '원스'처럼 전형적인 멜로 영화의 관습을 벗어난 결말로 막을 내린다. 뜻밖의 결말이지만 그 의외성이 영화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나이틀리가 직접 부른 노래들이 귓가에 오래 남을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13일 개봉.

초짜-타짜-신의 손 '3단 변신'

최승현 '타짜2' 다양한 캐릭터 완벽 소화

영화 '타짜-신의 손'(감독 강형철)이 극중 주인공 대길을 연기한 배우 최승현(사진)의 다양한 변신을 엿볼 수 있는 스틸을 공개했다.

'타짜-신의 손'은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타짜 세계에 뛰어들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최승현은 '초짜'에서 '타짜'를 거쳐 '신의 손'으로 성장하는 대길을 연기했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지금껏 보지 못한 최승현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눈길을 끈다. 강형철 감독은 "고향에 있는 대길은 과감한 꽃남방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캐릭터를 강조하고자 했다. 서울로 상경에 욕망에 눈을 뜬 대길은 패션 잡지에 나올법한 화려한 의상들을 매치시켰다. 최승현이 잘 소화해줬다"고 전했다.



최승현도 극중 대길의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에 어울리는 옷들을 직접 가져오는 등 열정을 보였다. 그는 "소년의 혈기왕성한 에너지부터 인생의 풍파를 맞닥뜨릴 때의 눈빛까지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고민했다"고 밝혔다.

'타짜-신의 손'은 오는 9월 추석 시즌에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해적', '캐리비안…' 본고장 진출

중남미 20개국·카리브해 연안 14개국 판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이 중남미와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에 판매됐다.

13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해적'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카리브 해 연안 국가 등에 판매·개봉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해적'은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인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등 8개국에 판매됐다.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2개 국가와도 판매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해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무대로 잘 알려진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에도 판매됐다.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퀴라소,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를 포함한 총 14개 국가에 판매돼 개봉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해적'은 올해 칸영화제 마켓에서 북미 지역과 일본, 독일, 벨기에 등 15개국에 선판매됐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으로 국새가 사라지자 이를 찾으러 나선 산적과 해적, 개국 세력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 영화. 지난 6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치정멜로 '마담 뺑덕' 10월 개봉

정우성·이솜 주연, 토론토영화제 초청

정우성, 이솜 주연의 치정 멜로 '마담 뺑덕'(감독 임필성)이 오는 10월 개봉을 확정했다. 다음달 4일 개막하는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다.

'마담 뺑덕'은 고전 '심청전'을 현대 무대로 각색한 작품이다.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한 여자, 그리고 그의 딸 사이를 집요하게 휘감는 사랑과 욕망, 집착을 그렸다.

국내 개봉에 앞서 '마담 뺑덕'은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토론토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60개국 300여 편의 영화가 소개되는 북미 시장 최대의 관문으로 평가 받는 영화제다. '마담 뺑덕'은 올해 영화제에서 서울을 테마로 한 8편의 한국영화를 선보이는 '시티 투 시티' 기획전에서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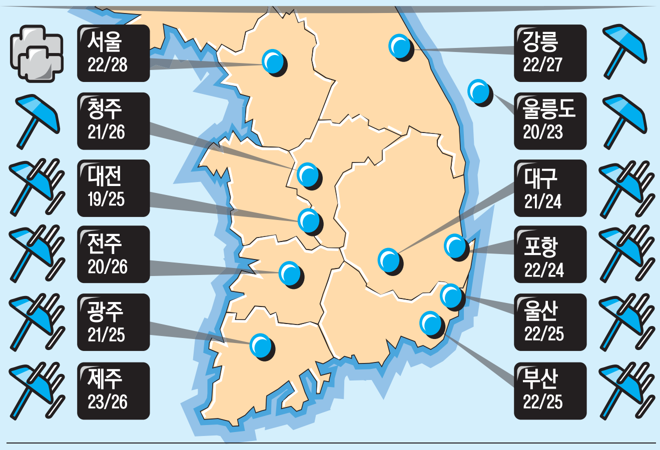
토론토국제영화제 카메론 베일리 집행위원장은 "고전적 소재가 임필성 감독 특유의 상상력으로 승화돼 잘 묘사됐다. 특히 정우성의 연기는 기존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로 재탄생돼 파격적이면서도 인상 깊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작품에서 정우성은 독한 사랑과 욕망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가는 주인공 학규를 연기했다. 스무 살 처녀에서 팜므파탈까지 복합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이솜, 그리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영화에 함께 한 신예 배우 박소영의 활약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장병호기자

날씨

8/14 木 일출시각 05:47 일몰시각 19: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여름에는 수영장을 다녀온 후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영 후에는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먼저 손을 씻어야 합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5			4		
1					2		8	
4			8			7		
				3	9	6		1
	5			8			2	
3		6	1	4				
		7			8			9
	1		3					8
		2			1		4	

	8		6			5		
			4				6	7
	6	2	1					8
7	9			6				
		5		3		7		
				5			4	1
8					6	9	1	
9	2				8			
		4			7		3	

스도쿠 정답

2	6	8	5	9	7	4	1	3
1	7	3	4	6	2	9	8	5
4	9	5	8	1	3	7	6	2
7	8	4	2	3	9	6	5	1
9	5	1	7	8	6	3	2	4
3	2	6	1	4	5	8	9	7
5	4	7	6	2	8	1	3	9
6	1	9	3	5	4	2	7	8
8	3	2	9	7	1	5	4	6

1	8	7	6	9	3	5	2	4
3	5	9	4	8	2	1	6	7
4	6	2	1	7	5	3	9	8
7	9	1	8	6	4	2	5	3
6	4	5	2	3	1	7	8	9
2	3	8	7	5	9	6	4	1
8	7	3	5	4	6	9	1	2
9	2	6	3	1	8	4	7	5
5	1	4	9	2	7	8	3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교황의 소울푸드, 야채 퐁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바냐 카우다(Bagna Cauda)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좋아한다는 음식이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하지만 이탈리아 북서부 알프스 지방 농민의 전통 요리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토리노 지역 특산요리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야채 퐁듀다. 스위스 전통 음식인 퐁듀가 녹인 치즈에 빵을 찍어 먹는 것처럼 바냐 카우다는 뜨겁게 끓인 안초비 소스에 홍당무나 샐러리, 무, 피망 같은 채소를 찍어 먹는다.

뜨거운 냄비, 혹은 뜨거운 소스에 찍어 먹는다는 뜻의 바냐 카우다는 유럽 멸치인 안초비와 마늘을 듬뿍 넣고 올리브기름으로 끓이는 냄비를 식탁 가운데에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는다. 봄 여름 보다는 날씨가 추운 가을, 겨울에 먹는 음식이다.

바냐 카우다는 사랑의 음식, 화합의 요리로 유명하다. 먼저 가족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토리노 시가 속해있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은 프랑스,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형적인 알프스 산록지역이다.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바다가 없어 안초비와 같은 생선도 없다. 그저 마늘만 풍부할 뿐이다.

이런 지역에서 생선인 안초비를 올리브기름에 끓이는 소스가 발달한 것은 알프스 산골 농부들이 추운 겨울, 가족에게 먹이려고 유일한 재산인 양털을 먼 바닷가까지 싣고 가서 소금과 생선으로 바꾸어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바냐 카우다는 겨울철 포도농장 농부의 음식으로 발전한다. 겨울이 빨리 오는 알프스 산록에서 농부들은 추위에 대비해 서둘러 포도나무를 돌봐야 했다. 이른 아침부터 냄비에 끓인 안초비 소스에 채소를 찍어 먹으며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힘을 합쳐 포도농장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리 비빔밥처럼 단결의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부모님은 바냐 카우다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이민을 왔다. 알프스 농부의 사랑과 화합의 마음이 담긴 바냐 카우다가 교황의 소울푸드인 까닭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초등학생 아들 사주 진로 알려주세요
교사나 선출직이 적성, 자기계발 필요

Q 알곡이. 아들 2002년 양력 5월 21일 오후 1시경

선생님의 인생길의 멘토를 보고 저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바빠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용기를 내서 상담 올립니다. 제 아들의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어려서 부터 자기의 사주에 맞는 직업을 알아야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상담내용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진로나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저도 미리 준비를 해서 이왕이면 아들에게 맞는 진로를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들은 2002년생으로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A 기축(己丑)생일 음토(陰土:습한 흙)로 인품의 고지식한 면이 있는 가운데 모든 식물을 품어 자라게 하듯이 인정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본다면 전답인데 여름에 태어나 조열하지만 비 내리는 축축한 땅이라 훌륭한 양토(良土)라고 봅니다.

사주 뿌리에 화(火)의 기운이 토(土)를 생해주고 금국(金局:금의 기운 쇠로 무리를 이룸)이 결합되어 사주뿌리에 금수(金水:쇠와 물)가 적절히 배합되어 다행입니다. 명리 학의 용어로 재생관(財生官).재성이 명예의 관성을 생해줍니다. 태어난 월(月)의 목(木)은 관성으로 명예와 지식, 관직을 말하며 재성은 재물을 말합니다.

사주에 맞는 기량으로는 후학을 가르치는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달의 사주가 을목(乙木)으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편관(偏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단계를 밟아 정식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직이 아니고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명예직이 가깝습니다. 초년부터 언행이나 공부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며 인생을 보람 있고 명분이 뚜렷하며 국가에 충성과 국민을 위해 헌신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여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으로 어려서는 인성의 기운이 있어 책읽기를 좋아하고 공부에 남다른 재주가 있을 것입니다. 총명해서 문리를 깨치는데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지녔으니 건강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종사하면 빛을 발하고 공부와 시문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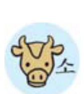
돈 버는 데는 악착스럽지 못합니다. 금전을 융통할 때를 비롯해서 어떤 경우에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4일 (음 7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 대비하라. **60년생** 한계는 곧 또 다른 시작이 돈다. **72년생** 남의 떡에 군침 흘리지 말라. **84년생** 모호한 태도는 오해만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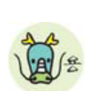
49년생 반가운 벗과 회포를 푼다. **61년생** 상황판단 잘하고 움직여라. **73년생** 새 일을 맡았는데 너무 어렵다. **85년생** 지도 없이 길을 가야하는 형국이로구나.



50년생 몸 다치지 않도록 조심~. **62년생** 꼬였던 일은 하나씩 정상화 된다. **74년생** 불가피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라. **86년생**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유토피아는 없다.



51년생 바쁜 만큼 실속도 좋다. **63년생** 1년 내내 맑은 날은 없는 법~. **75년생** 뜨뜻미지근한 배우자 때문에 부글부글~. **87년생** 바꿀 수 없는 일은 수용하는 게 좋다.



52년생 가정의 화합에 신경 써라. **64년생** 낯설어서 때론 자유롭다. **76년생** 주변의 기대 무참히 깨부수지 말라. **88년생** 몇 차례 실수는 내성 키우는 약이 된다.



53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65년생** 결심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마이웨이 하라. **77년생** 경쟁자에 트집 잡으면 역풍 맞는다. **89년생** 떠났던 임은 돌아오는구나.



42년생 돈이 오고가는 일은 분명히 할 것. **54년생** 자녀가 반가운 소식 전한다. **66년생** 조직의 이상기류 흐름 잘 파악할 것. **78년생** 칭찬 들을 일이 생긴다.



43년생 생각도 못한 불청객이 온다. **55년생** 건강 정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67년생** 집안문제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79년생** 방심하면 생각도 못한 손해 볼 수도.



44년생 인정이 너무 많아도 손해~. **56년생** 그동안 쌓은 인덕의 덕을 본다. **68년생** 배우자와 이심전심이라 야호~. **80년생** 잦은 사랑싸움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5년생 과음하면 망신수 따른다. **57년생** 의심이 가는 사람도 협력할 것 하라. **69년생** 자신의 존재감 보여줄 기회가 온다. **81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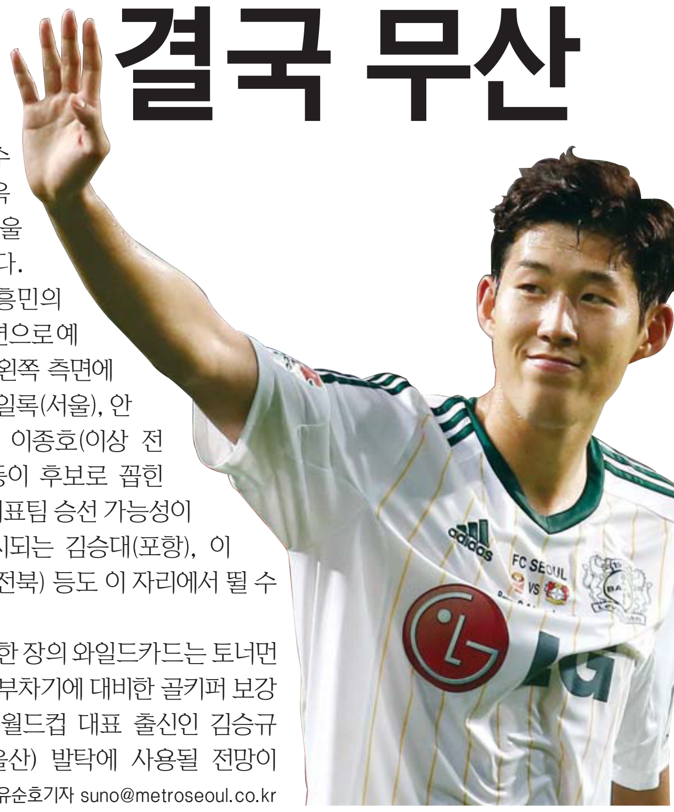


46년생 순리 따르면 만사가 편안~. **58년생** 원칙을 안 따르면 대가를 치른다. **70년생** 아랫사람에게 배울 것은 배우라. **82년생** 발에 땀 마를 날 없이 뛰어야 성공한다.



47년생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 **59년생** 충고는 엄하데 세련되게 하라. **71년생** 겁 없는 도전이 의외의 선물한다. **83년생** 상한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할 것.

손흥민 아시안게임 출전 결국 무산



레버쿠젠, 협회 재요청에도 차출불가 고수

한국 축구 간판 골잡이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레버쿠젠이 어제 손흥민을 차출 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16강전 이후부터 합류시켜달라고 재요청했다"며 "이날 오전 구단으로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캘린더에 없는 대회 참가를 위한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이 다시 왔다"고 출전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종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은 14일 20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명단에 손흥민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레버쿠젠의 방한 경기 때 안기헌 전무와 김동대 부회장이 직접 구단 고위 관계자를 만나 정몽규 회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구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훈련부터 합류하지 못해도 16강 토너먼트 이후부터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조 공문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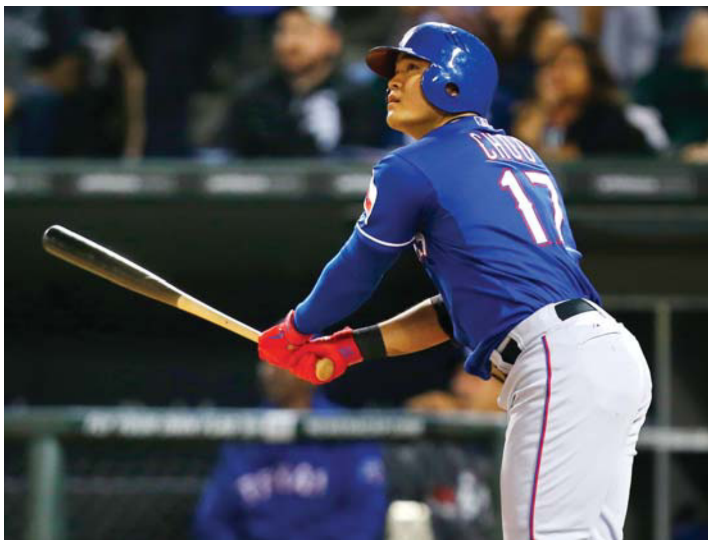
그러나 레버쿠젠은 손흥민이 팀 공격의 핵심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레버쿠젠은 20일과 28일 FC코펜하겐(덴마크)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경기 결과에 따라 팀 일정이 변한다. 아시안게임 기간 중 리그 일정도 약 5경기가 포함돼 있다.

손흥민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터뜨리고 성인 대표팀 선수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이광종호의 핵심 멤버로 꼽혀왔다. 손흥민은 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28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기고 병역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손흥민 카드를 잃게 되면서 이광종 감독의 진용 구상도 어려움에 처했다. 23세 이상 선수를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1장을 골결정력 보강을 위한 스트라이커에 쓸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는 장신 공격수 김신욱(26·울산)이다.

손흥민의 포지션으로 예상된 왼쪽 측면에는 윤일록(서울), 안용우, 이종호(이상 전남) 등이 후보로 꼽힌다.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김승대(포항), 이재성(전북) 등도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다.

또 한 장의 와일드카드는 토너먼트 승부차기에 대비한 골키퍼 보강으로 월드컵 대표 출신인 김승규(24·울산) 발탁에 사용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추신수 영양만점 2안타

연장 14회 승리 기여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연장 승리에 기여했다.

추신수는 1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7타수 2안타를 쳤다. 2개의 안타 모두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로 뒤지던 7회 1사 3루에서 추신수는 1타점 2루타를 때려 동점을 만들었다 시즌 19번째 2루타와 38타점째를 기록했다. 2-2로 맞선 연장 14회 1사 1,2루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만루를 만들었다. 추신수의 안타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 텍사스는 2사 만루에서 등장한 애덤 로살레스의 끝내기 볼넷으로 경기를 3-2로 마무리 지었다.

텍사스는 올 시즌 치른 119경기 중 최장 이닝 승부를 펼치며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전날 4타수 무안타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멈춘 추신수는 하루 만에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5를 유지했고 출루율은 0.345로 약간 떨어졌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3일

전북	3	2	강릉시청
상주	1	1	강원
(6 PSO 5)			
부산	1	2	서울
성남	2	1	영남대

프로야구 전적 13일

■사직

넥센	050	010	002	8
롯데	220	010	000	5

△승 = 밴헤켄(17승 4패) △세 = 손승락(2승 4패 25세이브) △패 = 홍성민(2승 3패) △홈 = 강정호 33호(5회1점·넥센)

■잠실

S K	100	340	000	8
L G	003	002	000	5

△승 = 밴와트(5승) △세 = 울프(1승 2패 3세이브) △패 = 류제국(5승 6패) △홈 = 스나이더 3호(6회2점·LG)

■광주

N C	000	012	010	4
KIA	100	020	000	3

△승 = 이민호(4승 2패 1세이브) △세 = 김진성(2승 2패 17세이브) △패 = 임준섭(4승 7패) △홈= 이호준 20호(5회1점·NC)